

뜨거운 5월, 캠퍼스를 달궂라

오는 20일~22일까지 3일에 걸쳐 'HSU, Hansung University'이라는 주제로 낙산대동제가 진행된다. HSU는 'Happen, Surprise, Unique'의 줄임말로, 특별하고 즐거운 축제가 되길 바라는 의미가 담겨 있다.

첫째 날은 파티, 과거 경연대회와 한성대 방송국에서 주최하는 낙산 가요제가 열린다. 낙산 가요제는 예심을 거쳐 약 10개의 팀이 본선에 출전한다. 낙산 가요제는 순수 창작곡만 참여할 수 있고, 타학교 대학생들도 참여 가능하다. 상금은 대상 100만원, 최우수상 30만원, 우수상 20만원이 주어진다. 이 날 낙산 가요제 초청가수로는 율하가 방문한다.

파티, 과거 경연대회에서는 각 과별 장기자랑도 함께 진행된다. 이 행사에서는 정보통신공학과, 산업시스템공학과를 제외한 공과대 전체가 참여하며, 인문대에서는 한국어문학부가 유일하게 참여한다. 사회과학대에서는 경제학과, 무역학과, 행정학과, 부동산학과, 예술대에서는 의생활학과, 무용학과, 회화과가 참여한다.

둘째 날에는 오후 4시부터 예술대 장기자랑 및 축하행사가 열린다. 이번 예술대 장기자랑은 예술대 뿐만 아니라 모든 단과대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작년에 했던 예술대 장기자랑 프로그램과는 차이가 있다. 한소희(회화 3)예술대 부학생회장

은 "이번 예술대 장기자랑 프로그램을 위해 총학생회와 함께 장기자랑 단원을 모집할 포스터를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둘째 날과 마지막 날에 있을 축하행사는 OX 퀴즈, 커플 찾기, 눈가리고 자장면 빨리 먹기 게임이 진행된다. OX퀴즈 문제는 상식문제와 짝은 문제로 구성된다. 최후의 1인에게는 문화상품권 5만원이 증정된다.

커플 찾기 게임은 재미있기로 우연히 당첨된 남녀 학우가 커플이 되어 게임을 하는 행사이다. 게임은 세 단계로 나뉘어져 있으며, 1단계는 15초 동안 눈 쳐다보기, 2단계는 풍선 터트리기, 3단계는 페퍼로 게임 또는 신문지 발뺌하기 게임을 한다. 우승한 커플에게는 영화티켓 4매가 상품으로 주어진다.

눈 가리고 자장면 빨리 먹기 게임은 선착순 10팀까지 참여할 수 있다. 이 게임은 2인 1조로 진행되는데, 한 사람은 자장면 먹는 사람 눈을 가리고, 나머지 한 사람은 자장면을 먹는다. 자장면을 가장 빨리 먹는 팀이 우승하게 되고, 우승한 팀에게는 승리장 세트 쿠폰이 주어진다.

마지막 날에는 가요제 및 다이나믹 듀오의 공연이 이어진다. 이 외에 동아리 공연 행사 일정은 이번 주에 정해진다.

한편, 작년에는 등록금 문제, 학자



▲ 작년 낙산 가요제 초청가수 배슬기에게 한 학우가 질문을 하고 있는 모습이다.

금대출 문제, 광우병 문제 등 사회문제에 관한 행사가 진행되었지만 이번 축제는 사회문제를 재조명하는 행사보다는 흥미위주 프로그램이 주를 이루고 있다. 이에 대해 오예지(영어영

문 3) 부총학생회장은 "이번 축제에는 사회문제와 관련된 의미 있는 프로그램은 생각하지 못해 아쉬움이 많이 남았다"고 전했다.

김명하 기자 kmh77@hansung.ac.kr

'디르크(Dirk) 교수' 초청 세미나 개최

지난 4월 26일 청의관 소강당에서 디르크 플라이쉬만(Dirk Fleischmann) 교수 초청 세미나가 열렸다. 이날 디르크 교수는 자신의 작품 소개를 중심으로 자신의 활동을 설명했다.

디르크 교수의 작품은 국내 예술작품계에서는 전례가 없는 '1인 유사 기업' 형태의 프로젝트이다. 대표적인 작품은 '나의 키오스크' (My Kiosk 1998-2002)와 '나의 패션산업' (My Fashion Industries) 등이다. 키오스크는 손님들이 자유롭게 돈을 내고 초콜릿바를 가져가도록 간이 자판대를 설치하고 자판대를 이용하는 손님들을 촬영해 만든 작품이다. 반면 나의 패션산업은 생산과정에 주목한 작품이다. 디르크 교수는 셔츠 생산 과정을 촬영, 생산된 셔츠에 고유번호를 붙여 셔츠를 만든이를 인터넷에 날라리 공

개했다. 또한 셔츠를 제작하는 노동자를 인터뷰한 영상을 올리기도 했다. 그는 강연 중 "누가 셔츠를 만들었는지 알게 하고 싶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상품으로서의 의복이 내뿜는 아우라를 주목하지만 기본적으로 옷은 기술자가 없이는 만들어지지 않는다."며 작품제작 의도를 밝혔다.

디르크 교수는 이 밖에도 국내에서 2007년부터 진행중인 '부동산' (Real Estate) 프로젝트를 공개하기도 했다. 이 프로젝트는 일종의 '가상 부동산'을 현실과 접목시킨 것으로 이를 위해 디르크 교수는 현실에 존재하는 pool 갤러리를 가상게임 세상 '세컨드 라이프'에 건설했다. 그는 앞으로 pool 갤러리를 가고자 하는 고객이 갤러리 근처의 PC방에서 세컨드라이프에 접속해 내부를 관람할 수 있게 하

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자리에 참석한 정연이(회화과) 교수는 "디르크 교수의 이러한 작품들은 그가 평소 가지고 있던 사실주의적 예술철학과 자본주의에 대한 관심에서 나온 것으로 보인다"며 "예술과 경제는 전혀 상관이 없다는 일반적인 시각을 깨고 자본주의의 현실을 여과 없이 드러낸 디르크 교수의 작품은 새롭고 흥미로웠다"고 소감을 전했다.

한편 이번 세미나를 기획한 한혜련(아트앤디자인연구센터) 센터장은 "모든 예대학생, 교수들이 참여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고자 이번 행사를 기획했다"며 "이번 세미나가 학생들의 시각이 넓어질 수 있는 기회가 되었길 바란다"고 전했다.

김명하 기자 chio@hansung.ac.kr

취업 정보는 잡 카페에서!

지난 15일 청의관 1층에서 진로와 직업 탐색의 기회를 제공하는 'Job cafe' 오픈식이 있었다.

김미희(취업지원팀) 팀원은 "Job cafe"이하 잡 카페에서는 학우들에게 취업에 대한 다양하고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는 한편, 적성에 맞는 진로 탐색의 기회를 제공해 학생들이 성공적인 취업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자 한다"며 운영 목적을 밝혔다.

잡 카페에서는 집단이나 개인의 진로상담을 상설로 운영한다. 이곳에서 학우들은 진로 및 직업관련 심리검사를 받을 수 있다.

또한 직업카드를 활용해 직업정보

와 직업흥미를 탐색할 수 있으며, 외부 기관과의 취업, 진로지도 프로그램 연계 사업도 실시한다.

김영민(정시 2) 학우는 "취업 문제에 대한 정보를 유익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 같다. 앞으로 취업, 진로 상담을 위해 종종 이용하겠다"고 행사 참여 소감을 밝혔다.

잡 카페는 시간·요일별로 다양한 상담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상담 시간은 오전 9시~12시, 오후 1시~5시까지이며, 취업 관련 서적은 오전 9시~오후 9시까지 이용가능하다.

매주 월·화·금요일에는 개인 상담을 받을 수 있고 수·목요일 오후에는 사전

에 접수한 사람을 대상으로 집단 상담을 진행한다. 또한, 월요일 오후에는 진로 관련 심리검사를 실시하고 금요일에는 이력서와 자기소개서 클리닉 및 실전면접에 관한 팁을 얻을 수 있다고 한다.

취업상담은 학년에 따라 다르게 운영된다. 1학년은 심리검사, 2학년은 전공 선택과 교직이수, 3학년은 직장 연수 체험과 인턴십, 4학년은 취업 커뮤니티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정주택 총장은 "잡 카페가 우리학생들의 꿈을 실현하는데 크게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전미라 기자 hxyq@hansung.ac.kr

ICDL, 취업을 위한 필수선택

지난 28일 미래관 지하DLC에서 국제표준IT자격증 ICDL(International Computer Driving Licence) 설명회가 열렸다. 이 설명회는 백승동 한국생산성본부 전임위원을 강사로 초빙했다.

ICDL은 사용자의 컴퓨터 활용능력을 인증하는 국제표준IT자격증으로 현재 148개국에서 실시되고 있다. 또한 전 세계에서 동일한 시험요강을 적용하며, 마이크로소프트사 제품뿐만 아니라 맥, 리눅스, Open Office 등에서도 사용이 가능하다.

그 밖에 UN, 유럽위원회와 같은 국제기구와 IBM, 노키아 등의 글로벌기업에서 IT능력을 판단하는 기본과정으로 활용되고 있다.

우리나라에는 2008년 3월 처음 도입되어 국내 대기업, 공공기관, 공기업, 지방자치단체에서 활용되고 있다.

따라서 ICDL을 적극적으로 도입하는 대학이 늘어나고 있다.

서울대학교를 비롯한 국내 여러 대학들은 ICDL을 학점인정, 졸업인증, 교양과목 등으로 활용하여 재학생들의 취업 경쟁력을 높이고 있다.

특히 연세대학교 평생교육원에서는 지난 동계 방중 ICDL 특강을 실시했고, 매월 ICDL 강좌가 정규 교과과정으로 개설되고 있다.

연세대학교 평생교육원 ICDL 김태균 교수는 "컴퓨터와 관련된 국제자격증은 크게 MOS와 ICDL이 있다."

그러나 주로 일본과 우리나라에서만 통용되는 MOS와 달리 ICDL은 유

럽, 미국을 비롯해 중동, 아시아, 아프리카 등에서 널리 통용되고 있다.

글로벌 기업들이 ICDL을 많이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취업을 준비하는 학생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지난 방중에는 4개 반, 200여명의 정원이 금세 마감되는 등 기대보다 반응이 좋았다"고 설명했다.

또한 ICDL은 단순히 사용자의 컴퓨터 활용 기능을 측정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컴퓨터 활용 실무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시험이다.

지난해까지는 영어로 시험을 치러야 했으나 올해부터는 한국어 버전이 출시되어 한국어로 시험을 보는 것도 가능해졌다. 시험은 크게 4과목으로 나누어지며, 한 과목에 1주일씩 총 한

달 과정으로 하는 것을 논의 중이다.

시험의 수준은 MOS보다는 다소 어려우나 인문대학, 경상대학 학생들에게도 무리가 없는 정도이다.

2학기에 도입 예정인 ICDL 어드밴스드 과정은 보통 이상의 IT지식과 컴퓨터 활용능력을 갖춘 사람을 대상으로 한 심화과정으로 공과대학 학생들에게 유용할 것으로 보인다.

우리학교 ICDL 강좌는 5월 말~6월 중에 평생교육원에서 한달 과정으로 개설될 예정이다. 수강료는 기본 4과목에 20만원이고, 교육훈련지원금이 적용된다.

이상미 기자 sangmi@hansung.ac.kr



▲ 지난 5월 1일, 농구코트에서 인대체전 농구 결승전이 벌어지고 있다.

제 3회 한성대 신문사 사진공모전

기간: 2009년 5월 6일~ 5월 22일까지

대상: 한성대학교 전 구성원 (학부, 대학원, 교수 및 교직원)

주제: 자유 (주제의 제약이 없음)

제출형식: 8X10 크기로 인화해 제출 (1인당 최대 3점까지 제출 가능)

제목을 붙이지 않을 시 '무제'로 처리

제출장소: 학생회관 제1별관(우리는행맞은편 건물 2층) 한성대신문사

발표: 한성대신문 제 426호(6월 1일 발행)

상금: 금상(1명) - 상장 및 상금 30만원

은상(1명) - 상장 및 상금 20만원

동상(1명) - 상장 및 상금 10만원

문의: 한성대학교 신문사(중문 앞 학생별관 우체국 건물 2층)

02) 760-4186, 010-4534-8682

bluedreamsz@hansung.ac.kr

- * 타 대회 참가작 중복지원은 불가합니다.
- * 시상자는 참가자의 수와 작품의 질에 따라 가감될 수 있습니다.
- * 심사위원은 당선작 발표와 함께 신문지상에서 발표합니다.
- * 작품 걸음에 사진공모전 참가작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름, 소속, 연락처도 기입)



학내 주차 서비스 개선 논의 중 부족한 주차공간과 서비스 질 지적

지난 1일 '주차장업제신청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우리학교는 재경주차관리와 재계약했다. 정대홍(법인사무국) 사무국장은 "재계약을 하면서 주차요금 동결, 주차서비스 개선, 주차장 청결 등을 약속했다"며 앞으로 서비스가 나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 동안 주차관리소에 대한 학생들의 불만이 제기되고 있었다. 이현준(기계 3) 학생은 "주차관리소에서 주차비만 받고, 차량관리를 제대로 해주지 않는다"며 "더욱이 우리학교는 주차공간이 부족하고, 운동장의 경우 주차 구역이 제대로 나뉘져 있지 않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우리학교에는 총 261대를 주차할 수 있지만, 주차시설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이보다 훨씬 많아 불편함을 야기하고 있다.

원래 우리학교는 320대의 주차 공간이 있었다. 하지만 우리은행 앞의 주차가능 공간이 토지 소유권 문제로 사용하지 못하게 되면서, 25대 주차공간이 사라지고 4대만 주차가 가능하다. 또한 탐구관 앞 공간에 분수대가 설치돼 약 70대를 주차하던 곳 역시 없어졌다.

주차가능구현현황	정기권관매현황	일시권관매현황
여고주차장 133대	교수 165대 (80% 122대)	
우촌관지하주차장 47대	직원 71대 (100% 71대)	
우리은행앞 4대(예전 25대)	강사 110대 (60% 66대)	
탐구관 0대(예전 70)	조교 8대 (80% 5대)	
연구관 6대(이전주차)	임대 12대 (100% 12대)	
과학관 16대	여고 43대 (100% 43대)	
지선관 15대(이전주차)	여중 28대 (100% 28대)	
진리관(운동장) 40대	공용차량 10대 (100% 10대)	학생 35대
합 계 261대	431대	467대

물론 부족한 주차공간을 대신하기 위해 진리관 앞 운동장에 40대의 주차 공간을 확보했지만, 이를 포함해도 우리학교에 총 주차 가능한 대수는 261대밖에 되지 않는다.

그렇다면 이번 학기 주차 현황은 어떨까? 먼저 주차장기권 현황을 살펴보면, 교수를 비롯한 교직원 등은 총 431대의 정기권을 구매했다. 이는 우리학교에 주차 가능한 261대를 크게 웃도는 수치이다.

또한 이번 학기 일일 주차 현황을 살펴보면, 주차장을 이용한 자동차 대수가 467대로, 우리학교에 주차 가능한 261대를 넘어서는 것을 알 수 있다. 때문에 사람이 많은 평일의 경우 주차공간이 부족해 다른 곳에 주차해야 한다. 학우들이 느끼는 문제는 주차 공간 부족만이 아니라 주차요금 문제도 있다. 현재 우리학교의 교직원과 교수는 월·학기 주차 정액이 있어 월 1만원, 학기 6만원으로 싸게 주차

장을 사용한다. 하지만 월·학기 주차요금 혜택은 학생에게 제공되지 않아, 학생은 일일 최대요금으로 주간 5천원, 야간 3천원을 내야 한다. 이는 자동차를 가져와야 하는 학생들에게는 큰 부담이 된다. 물론 우리학교의 학생 주차요금은 서울 시내에 위치한 타 대학들에 비해 싼 편이다. 하지만 학생들에게 일일 5천원의 금액은 큰 액수이다.

낙산의 메이리에 주차 관련 글을 올린 합기식(경영 4) 학생은 "주차관리의 문제도 문제지만, 더욱 화가 나는 점은 주차관리소의 불친절이다"며 주차관리소의 서비스 개선을 촉구했다. 우리학교 주차관리를 담당하는 김재경(재경주차관리) 사장은 "해당 직원을 교체하고, 앞으로 주차 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해 주차요원의 교육을 강화할 예정이다"며 앞으로 주차관리 서비스를 개선하기로 약속했다.

한편 주차공간의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건 주차관리소 역시 마찬가지다. 김태라(재경주차관리) 소장은 "우리학교는 주차 공간 부족으로 인해 운동장에 주차를 허용하고 있다. 때문에 운동장에 주차된 차를 관리하기 위한 직원을 추가로 고용하고 있는 상황이다"며 주차관리의 어려움을 호소했다.

정대홍 사무국장은 "부족한 주차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운동장 지하에 주차장을 공사하거나, 우체국 뒤편의 공간을 확대하는 방안을 계획하고 있다"며 "운동장에 지하 주차공간을 마련할 수 있는지 얼마 전 지질 검사도 시행했다"고 주차공간을 확대하기 위해 노력 중이라고 밝혔다.

또한 현금영수증과 관련해 정대홍 사무국장은 "재계약을 하면서 주차관리소 이용 요금을 현금 영수증으로 받을 수 있도록 일체측에 요청했다"며 "새로운 회선을 설치해야하기 때문에 시간이 걸리겠지만, 앞으로 설비하겠다는 대답을 받았으니 기다려 달라"고 말했다.

박형진 기자 phsiltan@hansung.ac.kr

간주린소식

구성에 강사의 성희롱, 성폭력 예방 특강

오는 5월 13일 오후 4시~6시까지 낙산관 대강당에서 구성애(푸른아우성) 대표의 '재학생을 위한 성희롱, 성폭력 예방' 강연회가 열린다.

선지선(양성평등 상담소) 행정조교는 "이번 강연회는 성희롱, 성폭력 근절 및 양성평등 상담소에서 주최한다. 강연의 목적은 올바른 성문화 확립과 학내 모든 구성원들의 양성평등 의식을 함양하는 것이다. 또한 교육부에서 성매매에 관한 지침을 강화할 것을 요구해, 성매매 예방에 대해서도 강의할 예정이다."고 설명했다.

대의원들의 소통을 위한 대의원 학교

지난 5월 2일~3일 양일간 총대의원회에서 주최한 '대의원 학교'가 열렸다. '대의원 학교'는 총대의원회에 소속되어있는 각 학과의 대의원이 참가하는 교내 프로그램이다. 각과 대의원들이 학우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총대의원회에 발언함으로써 학우들의 의견이 학교 정책에 반영된다.

이를 위해 총대의원회는 '대의원이란 무엇인가'란 역할 교육과 함께 대의원들 사이의 친목과 소통을 위해 레크리에이션을 준비했다고 말했다. 이 행사에 참석한 오세원(지정 1) 학생은 "황금 주말 때문에 참여율이 저조했던 것은 아쉬웠지만, 평소 만날 수 없는 타과 학우들을 만날 수 있어 신선한 경험을 했다"고 의견을 밝혔다.

+ - × ÷, 타이포 그래피 놀이

지난 4월 28일~5월 1일까지 연구동 A&D Gallery에서 한성 타이포 연구회의 세 번째 전시회가 열렸다. '+ - × ÷' 라는 제목으로 열린 이번 전시회는 타이포를 더하고, 빼고, 곱하고, 나누는 방식을 사용해 작품을 제작했다.

한글 자소를 가지고 재미있게 패턴화한 표정지각 전시공간을 채웠으며, 관람 에티켓과 관련된 피로그램을 한글 자소로 유틸리티 있게 표현한 작품은 실제 전시장 밖에 붙여져 활용되었다. 가까이에서 보면 하나의 그림이지만 멀리서 보면 TYPE 라는 글자로 보이는 독특한 작품 또한 선보였다. 갤러리 중앙에는 한글의 조형성을 사용해 액세서리로 만들어 결합한 작품이 전시되었다.

봄맞이 인대체전

지난 4월 29일~5월 1일까지 학교 운동장에서 인대체전이 열렸다. 이번 인대체전은 '네 개의 학부가 서로 물리치자'라는 뜻인 사각사각(四角四角)을 기조로 내세웠다.

4월 29일~30일 양일간 축구, 피구, 농구, 족구, 발야구, 줄다리기 등 주요 예선이 벌어졌다. 5월 1일에는 결승과 계주가 치러졌다. 경기결과 축구, 피구, 줄다리기는 역사문화학부가, 족구와 발야구는 지식정보학부가, 농구와 계주는 영어영문학부가 우승했다. 번외경기인 단체줄넘기는 지식정보학부가, 3인 4각은 역사문화학부가 승리했다. 뽀롱뽀롱 많이 받기는 영어영문학과와 지식정보학부가 공동 1등을 했다.

올해 인대체전은 총점 1210점을 받은 지식정보학부가 우승을 거머쥐었다.

동정란

박희영 (한국어문학부) 교수 박 교수는 지난 4월 25일 제23차 한국사학회 전국학술발표대회 및 총회에서 회장으로 선출됐다.

전완식 (애니메이션·제품디자인 전공) 교수 전 교수는 대한민국 미술인들에게 최고 권위의 상을 수여하며 미술인들의 축제인 '대한민국 미술인의 날' 행사에서 대한민국 미술인의 날 조직위원회 사무총장으로 활동하게 되었다.

윤재건 (기계시스템공학과) 교수 윤 교수는 5월 19일부터 21일까지 체코 프라하에서 열리는 가스자동차관련 국제표준회의(ISO TC22/SC25)에 참가하여 'Vibration test specification for LNG fuel tank'를 발표하고 한국측 대표로 국제규격제정에 참여한다.

이충진 (교양학부) 교수 이 교수는 지난 4월 23일 독일 철학자 칸트의 고향인 칼러닝그라드(구 페니히스베르크)에 위치한 러시아 국립 임마누엘 칸트 대학교에서 개최된 제10회 국제 칸트 학술대회에 참가하여 「유교문화권에서의 칸트 실천철학의 수용 - 한국의 경우」라는 주제의 논문을 발표했다.

대학생이여 스스로의 대변자가 되어라

119주년 메이데이 기념 특강

지난 4월 28일, 미래관 ELC에서 119주년을 맞은 메이데이 기념 강연이 열렸다.

등록금 문제를 집중 조명한 이번 강연은 '서른이 넘는 사람 말을 믿지 말라'라는 제목을 내걸고 진행되었다. 이는 대학생들에게 기성세대가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를 버리라고 말하고 있다.

이 날 강연을 맡은 등록금넷의 간사인 안진걸(컴퓨터연대) 민생희망팀장은 "법을 바꿀 수 있는 기득권층은 이미 기성세대이다. 그러므로 그들은 대학생들의 고통을 제대로 이해할 수 없다"며 "대학생들이 스스로 나서지 않는 한 등록금 문제는 쉽게 나아지지 않을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등록금넷의 자료에 따르면 학생들의 60% 가까이가 휴학을 고민하고 있으며 학자금 연체자는 3만여 명에 달하고 있다.

그는 실제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정부뿐이라고 말했다. 또 정부의 교육비 지원이 결국 경제를 살리는 기반이 되어줄 것임을 주장했다. 그가 오랫동안 문제에 내세운 해법은 '반값등록금 정책'과 '등록금 후

불제'이다. 반값등록금 정책은 정부가 등록금의 반액을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것이다.

그는 그와 관련해 정부의 추경 예산안에 대한 비판을 가하기도 했다. 통계에 따르면 대학생의 총 등록금은 약 12조원에 이르는데, 반값등록금 정책은 그 중 정부가 5조원만 지원해줘도 실현이 가능하다.

안진걸 팀장은 "부자 감사와 대운하 산업에 책정된 금액이 부당하다. 이 두 가지 안건이 반대의 여론이 클에도 불구하고 강행되고 있다"며 정부의 현 예산안을 비판했다.

또 다른 해법인 등록금 후불제는 대학생들이 정부의 지원 하에 학교를 마친 뒤, 취업하여 등록금을 갚아나가는 정책이다. 안진걸 팀장은 영국과 프랑스 같은 선진국을 예로 들며, 등록금 후불제가 등록금 문제에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강연 중에 '언어의 한계는 세계의 한계'라는 말을 인용하며 우리나라의 현실을 되짚어 주었다.

강연을 듣는 학생들에게 편견이 담겨있는 우리말의 사례를 들어주면서 '처지와 조건이 언어에 반영이 되고

현실에도 반영이 된다. 그런데 그동안 우리나라는 모든 면에서 남자, 어른, 오른쪽손잡이가 중심이 되어왔다"며 "청년들은 그 중심에서 소외되어 있었다. 그런 까닭에 고액 등록금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도, 해결할 이도 없었다."고 자신의 의견을 내비쳤다.

그러나 그는 요새 우리 사회에도 긍정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고 말했다. 여성이나 장애인 인권이 점차 보장되고 존중되는 것을 지켜보고 있다면, 시민사회단체와 평범한 이들이 내는 목소리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깨닫게 된다고 한다.

그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학생들의 참여라고 말한다. 그는 "단체에서 활동하는 것뿐 아니라, 대학의 문제에 대해 끊임없이 문제를 제기하고 인식하는 것 또한 참여라고 볼 수 있다"며 "대학생들의 참여가 많을수록 비로소 그들의 의견이 힘을 얻게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강연을 마치고 앞으로는 대학생들이 스스로를 대변할 수 있게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종재 기자 dogiluve@hansung.ac.kr

백승주 아나운서와 함께한 취업특강

지난 28일 미래관 지하 DLC에서 KBS 백승주 아나운서 강연이 열렸다. 그는 "강의를 듣고 많은 학생들이 나와 같은 시행착오를 겪지 않고 성공했으면 좋겠다"고 말하며 강연을 시작했다.

그는 "대학을 졸업한 후에 취업에 자신이 없어 대학원에 들어갔지만, 하고 있는 공부에 회의가 들었다. 그래서 내 적성에 맞는 일을 찾게 되었는데 그게 아나운서였다"며 아나운서를 하게 된 동기를 설명했다.

그는 "방송에 대해서 아무것도 아는 것이 없었지만 어렸을 때부터 말을 잘한다는 소리를 자주 들어왔기 때문에 아나운서에 흥미를 갖게 되었다"고 말했다. 그는 26살 늦은 나이에 아나운서가 되기로 결심했고, 부단한 노력 끝에 지방에 있는 삼척 MBC 계약직으로 입사했다. 삼척 MBC 방송국에서 일하는 동안 정규직으로 입사를 하기 위해 하루 4시간씩 자면서 방송 공부를 열심히 했다.

그 결과 1년 후에 KBS 공채 아나운서에 합격할 수 있었다. 그는 "꿈을 늦게 찾아서 동기들보다 3살이나 많은 나이에 아나운서로 입사하게 되었지만 후회는 하지 않는다. 하지만 나에게 맞는 일을 좀 더 일찍 찾았으면 먼



길을 돌아오지 않았을 거라는 아쉬움이 남는다."고 전했다. 이어서 "더 늦기 전에 하루 빨리 자신이 관심 있는 일을 찾아 도전해 보라"고 학생들에게 조언했다.

또한 그는 10년 후 나의 모습을 상상해 보면서 자서전을 만들어 보라고 언급했다. "5년 전에 썼던 자서전 내용이 지금 나의 모습과 일치하는 부분이 많다. 자신이 원하는 일과 꿈을 이루기 위해 장기적으로 해야 할 일들을 직접 메모하며 계획하는 습관이 자기 발전에 많은 도움이 된다"며 "대학시절에 자신만의 멘토를 만들어라. 멘토는 자주 만나는 사람 중에서 찾는 것이 좋다. 너무 먼 곳에서 찾으려고 하지 말라"며 학생들에게 마지막 당부의 말을 전했다.

김영희 기자 kmh77@hansung.ac.kr



헤어나오기 힘든 신용불량의 늪

취업, 금융, 대출 전반에 영향끼쳐

신용불량이란 3개월 이상 카드 대납 금액 연체가 지속될 경우에 개인에게 적용되는 신용평가등급이다. 기본적으로 신용불량은 신용카드 사용시 주로 일어날 수 있는 일이지만 체크카드라 해서 사용시 신용불량이 되지 말란 법은 없다. 학자금 대출이나 핸드폰 요금급이 매달마다 내야 하는 일정 지출액이 있는 경우, 카드 유무와 관계없이 신용불량이 될 수 있다. 당장 통장에 돈이 없더라도 일정 금액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기 때문이다. 최근 일부 체크카드에서는 교통료를 후불할 수 있게 하는 기능이 추가되었다. 일정 납입금액이 정해져 있는 대출자와 달리 가격의 변동성이 큰 교통료와 핸드폰 요금 등은 소액 신용불량을 만드는 주요 원인으로 꼽히고 있다.

신용불량 상태가 되면 연체 액수와 상관없이 금융 업무 전반에서 손해를 볼 수 밖에 없다. 은행연합회 지수(신용정보) 부부장은 "금융회사들은 고객에게 신용공여(대출, 신용카드 발급, 보증서 발급 등)할 때 고객이 제출한 소득, 재산정보 등 우량정보와 전국은행연합회 신용정보 공동전산망의 '연체 등 정보'(연체자의 연체 정보내역)를 포함, 대출정보,

채무보증정보 등을 활용한다. 또한 신용평가회사의 정보를 활용하여 고객의 신용도를 판단한 후 거래여부 및 대출한도를 결정하게 된다. 특히 연체 등 정보는 신용판단시 불리한 요인으로 작용하여 신용공여(대출)를 제한 또는 차별하는데 활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신용불량에 처한 학생들이 입기 쉬운 불이익으로는 일반적인 금융업무 제한 외에도 '취업제한'이 있다. 대부분의 취업 전문 상담사들은 신용불량이 취업에 있어 적잖은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경고한다. 우리학교 잡카페의 김미희(취업지원팀) 상담사는 "특히 공공기관이나 금융기관에서 신용정보를 조회하고 있다. 몇몇 기관의 경우 조회를 통해 나온 신용정보를 취직 결정 사유로 처리해 취직을 취소하는 경우도 있다."며 신용불량이 취직시 영향을 미칠 수 있을거라 내다봤다.

또한 기업이 신용정보를 조회하지 않더라도 취직시 신용보증보험 증권을 요구할 경우, 취직이 제한될 수 있다. 신용보증보험에 가입하려면 일정 한 사정기를 거쳐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개인의 신용상태가 평가자료로 쓰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신용보증보험을 가입하지 못해 취직을 제한당하

는 사례까지 합쳐 생각하면, 신용불량이 기업 취직에 있어 미치는 영향은 무시할 수 없다.

신용회복위원회 소속 취업안내센터의 한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신용정보를 조회하려면 개인동의서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이력서나 제출 서류에 개인신용정보를 조회해도 관측하는 등의 문구를 넣는 기업의 경우 열에 아홉은 신용정보를 조회한다고 보아야 한다."며 "기업들이 이같이 신용정보를 확인하려 하는 이유는 사원의 생활이 공평하면 일어날 수 있는 회사의 손실, 즉 혹시 일어날지도 모르는 신용정보 사고에 대한 불안감 때문으로 분석된다."고 말했다.

이같은 사실들은 신용불량자가 변제를 위해 취직을 하고자 하여도 취직이 되지 않고, 갚아야 할 이자는 계속 쌓여 신용회복을 하기 어려운 악순환에 처하기 쉽다는 것을 의미한다. 학생 스스로가 특별한 수입 없이 꾸준히 사용해야 하는 생활비가 있다면 악순환을 빠져나오기는 더욱 어렵다. 한국교육개발원의 대학의 교육비와 수익률 분석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6개월에서 지출하는 대학생의 생활비 수준은 평균 112만 8000원, 사교육비는 평균 56만 6000원으로 총 169만 3000원으

로 조사됐다. 이 같은 생활비를 부모의 도움 없이 학생 본인의 계좌에서 인출해 쓰고 있다면 못해도 한 학기에 170만 원 가량을 학생 스스로 부담할 수 있어야 한다는 말이 된다.

한편 평가 절하된 신용정보도 장시간 발목을 붙잡는 점도 문제다. 은행연합회 지수부 부부장은 "신용정보를 제공받고 있는 신용평가회사에서는 개인들의 신용정보 기록을 최장 5년간 보유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개별 금융회사가 신용평가회사의 신용정보를 활용하여 고객에 대한 신용공여(대출)를 판단할 경우 과거 5년 동안의 신용정보 기록을 활용하게 된다."며 신용등급에 변동이 있을시 장시간 사회생활에 영향을 줄 수 있음을 전했다.

이 때문에 전문가들은 신용불량으로 인한 손해를 입지 않으려면 예방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말한다. 신용회복위원회의 한선애(홍보팀) 조사원은 "신용회복위원회에서 개인회생 제도도 운영하고 있지만 핸드폰 요금, 교통요금과 같은 은행권 외의 거래에 대해서는 회생제도를 적용하기 어렵다"며 "신용불량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개인 지출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다"고 말했다.

김병찬 기자 chilo@hansung.ac.kr



자연과 만나는 우리의 자세

강원화간사(사단법인 환경교육센터)

"아프지마, 내가 빨간약 발라줄게 호~"

코마 조카가 집에 기르던 작은 식물이 시들자 식물의 잎을 붙잡고 해주면 말이다. 힘없이 고개를 떨구고 있는 식물들 보자 조카는 그 작은 입을 모아 호~ 하고 불어 준다. 조카에겐 시들고 있는 식물이 안타깝고 낯게 해주고 싶은 친구이기 때문일 것이다.

조카를 보다가 문득 이런 생각이 든다. '우리가 이럴 때 마음으로 바라보는 세상에 대한 시각, 마음을 여전히 가지고 있다면 점점 심각해져 가는 환경위기, 환경오염, 이 모든 것은 없을 수도 있지 않았을까?' 그리고 보니 나이가 들고 어른이 되어 간다는 것, 세상을 그 만큼 더 경험하고 더 알아간다는 것은 동심과는 점점 더 이별하게 되는 과정인 것 같다. 나이가 들수록 들었던 사람이 주변에 자갈을 두고 친구라고 하고 부러진 연필이 아플까

박 반창고를 붙여준다면, 아마도 주변에선 '이, 저 사람 4차원이다' 라는 좀 특이하다는 표현들을 하지 않을까? 사실, 사물에 대한 어릴 때의 생각과 마음은 누구에게만 특별하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 동심이라는 이름으로 우리 지난 시절과 추억 속에도 있고 지금도 함께하고 있는 세상을 보는 마음인 것이다.

요즘 부쩍 '생태 감성'이라는 얘기를 많이 듣는다. 어떤 큰 뜻이 담겨 있는 말일까? 내가 생각하기에 자연을 바라보는 시각과 생태공동체 인의 모든 생명들을 존중하고 사랑하며 소중히 여기고 대하는 마음과 행동을 표현하는 말인 것 같다. 그리고 자연을 믿

수도 있지 않았을까? 그리고 보니 나이가 들고 어른이 되어 간다는 것, 세상을 그 만큼 더 경험하고 더 알아간다는 것은 동심과는 점점 더 이별하게 되는 과정인 것 같다. 나이가 들수록 들었던 사람이 주변에 자갈을 두고 친구라고 하고 부러진 연필이 아플까

누군가에게 배우기도 전에 말을 하게 되고 생각을 하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스스로가 취하게 되는 세상에 대한 처음의 마음가짐이라고 할까? 이 참에 내 안에 잠자고 있는 동심을 깨내어 먼지를 털고 다시 세상으로 향해 봐야겠다. 그러면 덩으로 '생태감성', '환경운동', '환경보호' 같은 이런 모든 행동과 마음도 자연스럽게 가지게 되는 것이다. 그러면 내게는 동심의 그리운 세상이 다시 펼쳐질 것이고 그런 마음들이 모이면 세상에는 큰 힘이 될 것 같다.

오늘은 유난히 귀여운 아기 고양이 바람이 불어 온다. 내 손가락 사이사이를, 내 머리카락 사이사이를 아기 고양이 작은 손으로 장난칠 때의 손짓처럼 그렇게 바람이 나를 간지럽히는 바람이다. 손을 하늘로 들어 손가락 사이를 날고 있는 그 귀여운 바람과 손잡는다. 그리고 손이나 나누며 얘기 한다. '반갑다 바람아, 어디 어디 구경하고 지금 나와 만났니?'

세상속 우리

“진정한 나의 삶을 찾기 위한 활동”

대학생 나눔모임에서 활동하는 이희순 씨

당신은 '대학생'이라고 하면 어떤 이미지를 상상하는가? 혹시 고대 그리스 플라톤의 아카데미처럼 대학을 진리의 성역으로 여기며 대학생다운 지성과 행동을 실천하려는 모습을 상상하지는 않는가?

여기에 바로 그렇게 대학을 즐기고 있는 대학생들이 있다. 바로 대학생 나눔문화(이하 대나눔)이다.

이희순(서울산업대 3)씨는 "대학생이 되고 보니 스펙경쟁과 경제논리를 진리보다 앞세우는 대학현실이 너무나 갑갑했다"며 "대학생다운 대학생이 되고 싶어, 대나눔에 가입하게 됐다"고 가입 계기를 말했다.



대나눔은 매주 토요일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여 고전을 읽는다. 대나눔에서는 고전에 대해 새로운 기준을 설정했다. 고전이라고 해서 기존의 난해한 것만을 다루는 것이 아니다. 짧지만 우리에게 새로운 관점을 제공 하는 현대적 의미의 고전을 읽는 것이다. 그리고 현실문제와 삶의 쟁점에 대해 전문가를 모시고 깊이 있는 토론을 한다.

회원들은 긴급한 사회현장에서 활동하기도 한다. 요즘 같은 시대에 버려진 것들을 찾아내고 고전을 읽으며 토론을 벌이고 여러 사회현장에 피켓을 들고 직접 달려가는 대학생들을 상상하기란 쉽지 않은 일이다. 하지만 이곳 대나눔의 학생들은 그렇게 하고 있다.

그들이 읽고 있는 고전에 대해 묻자 "읽기 어렵고 현실과 동떨어진 고전 보다는 우리에게 꼭 필요한 깊이 있는 지식을 제공하는 고전을 주로 읽는다"고 답했다.

최근에는 더글러스 러미스의 '경제성장이 안되면 우리는 풍요롭지 못할 것인가'를 읽고 토론

을 했다. 이러한 고전공부가 실제 사회현상에서는 어떻게 연결될 수 있을까?

"고전을 읽는다는 것은 생각의 힘을 키우는 것이고, 그것은 곧 실천하는 힘이 생기는 것을 의미한다. 고전을 읽고 감명 깊었던 부분이나 이해가 필요한 점에 대해, 그리고 사회문제에 대해 토론을 하다보면 평소 대하기 힘든 내 안의 상처가 드러난다. 그러나 더 들어가면 그 문제는 나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모두에게 공통된 문제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 그러면 그 생각을 실천하기가 한층 쉬워진다."며 고전 읽기가 단지 탁상공론에 그치지 않는다는 점을 설명했다.

"지성"을 쌓는 만큼 그들은 최근에 용산참사 100일 집회와 노동절, 촛불 집회 1주년 행사에 참여하는 등 행동하는 것에도 열성적이다. 젊은이들이 부족한 사회현장에 젊은 기운을 불어 넣는 것이다. 대학생다운 시적이면서 신선한 언어를 사용한 피켓을 들거나, 1인시위, 무대공연 등을 진행했다. 지난 1월에 열린 이스라엘과 팔레스타

인 문제에 대한 집회 때에는 신발던지기 퍼포먼스를 실행하기도 했다.

현재 정부는 아프간에 군대를 파견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은 여전히 분쟁을 이어가고 있고 바마에서는 민주화운동이 아직까지 벌어지고 있다. 대나눔은 이러한 글로벌한 평화활동에 특별한 관심을 쏟고 있다. 이희순 씨는 "요즘 사회는 국내외적으로 혼란스러운 상황이다. 하지만 이러한 상황에 휩쓸리지 않고, 가장 낮은 곳에서부터 고통을 나누는데 대학생들이 망설여서는 안 될 것이다."며 앞으로의 계획을 전했다.

최근 많은 대학생들이 너도나도 영어공부, 공무원 시험 등에 매달리고 있다. 이런 때에 대나눔 활동이 가지는 개인적 의미에 대해 이희순 씨는 "20대는 인생의 황금기이다. 이 시기에 스펙을 쌓는데 급급하기 보다는, 진정한 나의 삶을 찾는 것이 더욱 가치있는 시간활용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성미 기자 sangmi@hansung.ac.kr

낙산 만평

류현수(애니제작 2)



학술정보관 문화행사 저자와의 만남 초대

제5회 학술정보관 문화행사 <저자와의 만남>에 한성대학교 구성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다독상시상, 그리고 이익훈 어학원 영어강사이신 박정원 선생님의 "박코치의 영어천재비법" 강연으로 이어지는 이번 행사는 모두에게 알찬 시간이 될 것이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1. 일시 및 장소 : 2008. 5. 14(목) 14:00, 미래관 DLC
2. 초청강사 : 박정원 (영어강사, 이익훈어학원)
3. 저서 : 영어천재가 된 흥대리
4. 추첨을 통해 저자사인 도서 제공

* 학생들에게 박정원선생님의 강연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실 교수님은 학술정보관(5992, 김수영)으로 연락주시거나 첨부된 출석확인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집회 결사의 자유를 훼손하는 현 정부

지난 2일 촛불 집회 1주년을 맞이해 서울역, 시청 앞 광장 등 서울 도심 곳곳에서 촛불 1주년 기념집회 이하 촛불 기념집회가 열렸다. 하지만 정부의 지나친 억압에 촛불 기념집회 참가자들의 촛불은 밝지 못했다.

촛불시민연석회가 주최한 촛불 기념집회는 원래 서울역 광장에서 진행하기로 예정됐다. 그러나 경찰의 서울역 봉쇄로 인해 촛불 기념집회 참가자들은 서울역 1번 출구 앞에서 나아가지 못하고, 경찰과 대치한 상황에서 집회를 가져야 했다.

촛불 기념집회에 참가한 촛불시민연석회의, 민주노총 등의 대표인 '촛불 투쟁 결의문'을 읽으며 'MB 악법 폐지, 비정규직 폐지, 교육 평등화, 용산참가 책임자 처벌, 5월 정진 계승'을 외쳤다. 한편 길을 가던 평범한 시민들도 발걸음을 멈추고, 서울역에서 일어나는 촛불 기념집회를 지켜보았다.

촛불 기념집회에 참가한 주부 이지은씨는 "집에서 살림만 하다가 작년에 열린 촛불 집회에 우연히 참가한 이후로 정치에 관심을 가지게 됐다"며 이번 촛불 기념집회에 참가하게 된 배경을 설명했다.

이후 시민들은 "이명박 정권 끝났고, 사법당개 살아보자"라고 외치며, 청계광장에서 다시 한 번 모이기로 약속하며 막을 내렸다.

저녁 7시 청계광장에서 열린 촛불 기념집회는 서울역에서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다. 청계광장에 경찰이 투입돼 촛불 기념집회를 막았기 때문이다. 결국 촛불 기념집회 참가자들은 '하이서울페스티벌(이하 페스티벌)' 행진을 하고 있던 시청역으로 자리를 옮겨, "명박 퇴진, 독재 타도"를 외치며 집회를 가졌다.

하지만 경찰의 압박이 계속되자 곧 길을 잃은 참가자들은 페스티벌이 열리는 무대로 향했고, 몇몇의 과격 촛불 참가자들은 페스티벌 무대를 점거했다. 결국 페스티벌은 종료되었고, 경찰이 투입돼 참가자들을 연행하며 혼란이 빚어졌다.

이러한 상황을 지켜 본 송희진씨는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국가인데 현 정권은 민주주의의 기본인 집회 결사의 자유를 지켜주지 않고 있다"며 "집회 결사의 자유를 주지 않아, 직접 찾아오기 위해 촛불 기념집회 참가하게 되었다"고 현 정부에 대한 불만을 토로했다.

또한 경찰의 대응에 대해 송희진씨는 "우리나라 경찰은 시민을 보호하기 위해 있는 것 같지 않다"며 "우리의 권리를 지키고 보호하기 위해서는 누구에게 신고해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한탄했다.

앞으로 다시 한 번 촛불이 일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있다. 비정규직 투쟁을 위해 촛불 기념집회에 참가한 한 네티즌은 "촛불 집회가 정부의 탄압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이어왔다. 앞으로 작은 촛불이 지속돼 전 사회를 바꾸는 큰 불길에 되길 희망한다"며 이번의 계기로 촛불이 다시 살아나길 기원했다.

천우송(참여연대 간사)은 이번 집회와 관련해 "우리나라에서 집회 결사는 신고제인데도 불구하고, 현실은 경찰의 자의적 해석에 의해 허가처럼 운영되고 있다"며 "촛불 집회를 불법집회, 폭력집회라고 비판하는 것보다, 왜 시민들이 그렇게라도 집회를 할 수 없었는지 이유를 알아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 이어 천우송 간사는 "1년 동안의 촛불 집회는 많은 시민들이 자신의 몰랐던 권리를 알게 된 계기가 됐다"며 "앞으로는 광장의 촛불이 아니라도 개개인의 촛불을 켜 '자신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싸워야 한다"고 촛불 집회가 다양한 형태로 변화할 것을 촉구했다.

백형신 기자 phsllan@hansung.ac.kr

119주년 메이데이



노동절에서 대학생의 외침 들리다

등록금, 청년인턴제 등 대학문제 여론화 앞장서

등록금, 청년 실업 등의 대학문제가 전 사회적으로 제기되는 가운데 학생들은 노동절을 맞아 피켓을 들고 정부의 태도를 비판했다. 대부분의 학생들은 학생이 처한 문제는 곧 학생의 가족의 문제이고 나아가 국민들의 문제라며 정부의 해결책이 시급하다고 전했다.

노동절 행사에 참여한 본교 사회과학대에서는 이번 행사를 대학가의 현실과 대학문제를 돌아볼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고 평가했다.

4월 30일 전야제와 5월 1일 본대회 행사에 참여한 이국현(경제 3) 사회과학대 학생회장 "이번 노동절에서는 등록금과 같은 대학생 문제의 비중이 컸다."

참여했던 학생들은 다른 친구들과 소통을 하고 교류를 하면서 사회에서 대학생들이 관심 가져야 할 문제에 대해 많은 생각을 할 수 있었다. 대부분의 참가자들이 학교안에서 충분히 느끼지 못한 것들을 많이 느꼈다고 말해 유익한 시간이 되었다."며 이번 노동절 행사 참여에 대한 소감을 전했다.

또한 그는 "앞으로 6월 정기국회가 열릴 예정이다. 사회에서 말하는 MB악법들이 이번 국회에서 통과 된다고 하는데 이러한 사회 문제에 학생들이 적극 관심을 가졌으면 한다."며 대학생들이 사회문제에 적극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노동절은 대학생들의 자유 발원대가 되기도 했다. 5월 1일 본대회가 있기 전인 4월 30일 전야제에서 발언대에 선 한 학생은 "각 대학 당국의 탄압이 이어지고 있다. 고대측에서는 무기정학을 시행했고 이를 철회하는 소송을 준비중이다. 이를 위해 여러분의 응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자신을 연세대 수진이라고 밝힌 한 대학생은 5월 2일 촛불1주년 행사에서 "평화적으로 촛불 진행하려 하는데 그것마저 막는 이명박 대통령을 규탄한다"며 "대학생 등록금 천만원대라 휴학하는 학생이

속출하고 청년실업으로 인해 대학이라고 내놓은 인턴제는 학생들을 더 힘들게 만들고 있다"고 현 정부의 정책을 비판했다.

또한 그는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한나라당이 비정규직 철폐하지 않는다고 민주노동당이 해결책이라고 생각지 않는다. 비정규직 철폐를 실현하지 못할거라면 민주노동당, 우리 동지라고 하지 말라."며 임침을 놓았다.

5월 1일 노동절 본대회에 참여한 한 학생은 "대학생들이 점차 사회적 약자로 내몰리고 있다. 정부가 학생들의 목소리를 들으려 하지 않는 한 이러한 움직임은 계속될 수밖에 없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이번처럼 학생들이 대학생 문제를 여론에 노출시키려는 시도를 본격화 한 데에는 정부의 정책이 노동자들과 대학생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것이 큰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

이원기(한국대학생연립) 의장은 "대졸초임삭감이나 청년인턴제 같은 것은 대학생들만의 고통이 아니라 결국엔 전체 노동자들의 불안정한 미래로 귀결될 것이기 때문에 함께 힘을 모아 싸울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다."며 이번 노동절을 대학생운동의 날로 정한 이유를 설명했다.

한국대학생연립(이하 한대련)에서는 5월 1~2일을 전국대학생 운동의 날로 지정, 학생 대표들과 함께 송실대, 보라매공원과 여의도공원 등지에서 활동을 벌였다. 이날 행사는 8개의 학생단체와 70여개 학생회 등 약 4천여 명의 대학생이 참여했다.

이 행사에 참여한 학생들은 청년인턴제, 대졸초임 삭감 등이 대학생이 처한 취업문제를 실질적으로 해결하지 못하고 있으며 정부가 높은 대학등록금에 대한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행사를 주최한 이원기(한대련) 의장은 "대학생행 동에서 주로 다룬 주제는 등록금, 청년실업, 민주주의 세 가지였고 이 세 가지를 관통하는 이야기는 바

로 이명박 정부심판이었다"며 "이번 대회가 이명박 정부가 대학생들에게 펼쳤던 정책들이 대학생들을 위한 정책이 아니라 대학생들을 사지로 내모는 정책이라는 것을 알려내고 이명박 정부에게 대학생들의 분노를 집중시키는 지점이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노동절을 기점으로 반독재투쟁위원회가 본격 활동을 시작했다. 2일에는 촛불 1주년 행사 후에 반독재투쟁위원회의 기자회견이 이어졌다. 정태호(고려대 총학생회장) 반독재투쟁위원장은 지난 2일 반독재투쟁위원회 카페를 통해 "이명박 정권은 독재 정권이다. 경건한 식발 기자회견을 맞춘 전투경찰을 보았는가? 깡뎀과 머리칼마저 휘어잡힌 채, 수십 명 총학생회장들이 연행되었다"며 "우리는 '대학생 반독재 투쟁위원회' 본조직 출범을 선언한다. 그리고 이명박 독재의 마지막 송풍을 조일 제2차 불항쟁, 국민항쟁을 만들 것을 결의한다."고 반독재 투쟁위원회의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경찰들은 이러한 움직임에 강경대응으로 응수했다. 5월 1일 법국민 대회가 끝나고 행사에 참여한 학생들은 시청으로 이동하였다.

그런데 지하철클은 시청에서 멈추지 않았고 모든 지하철클 출구에 서터가 내려져 학생들은 1시간이 넘게 시청역에 갇혀있어야 했다.

이원기 의장은 "집회 및 시위의 자유가 보장되는 나라에서 우리가 울라가면 폭력집회를 할 거라는 경찰의 자의적 판단만으로 국민을 지하철클에 가둬놓는 일은 정말 불쌍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이명박 정부가 국민의 목소리를 듣기보다 틀어막는데 더 열안이 되어 있다는 것을 증명해준 일이라고 생각한다."며 경찰이 보여준 대응방식을 비판했다.

김병현 기자 chito@hansung.ac.kr

메이데이는 축제가 아니다

1890년도 이래 전 세계적으로 일어난 세계노동절 기념대회가 올해로 119회를 맞이했다. 우리나라에서는 본격적으로 1923년부터 5월 1일이면 노동절 기념대회가 열려왔다. 노동절에는 노동자들이 자신의 뜻을 사회에 알리기 위해 노동절 기념대회가 참가해왔다.

지난 5월 1일 오후 3시, 서울 여의도에서 119주년 세계노동절 기념 법국민대회가 열렸다. 대회는 서울을 포함한 전국 13개 지역에서 개최됐다. 대회를 주최한 측은 법국민대회 조직위원회(이하 조직위)이다. 조직위는 이례적으로 민주노총뿐만 아니라, 500여명의 범시민·사회단체까지 포괄해 구성했다. 평일에 진행된 행사임에도 이번 대회에는 시민 4만 여명이 모였다.

이번 대회는 참여 단체가 여럿인 만큼 그 내용도 다양했다. 조직위는 노동자들의 요구를 정리해 '10대 요구'를 제시했다. '10대 요구'의 주된 내용은 비정규직 철폐, 최저임금법 보장, 노동자의 기본권 및 건강권 보장 등이다. 이날 노동자들은 '비정규직 철폐'에 하나같이 목소리를 모았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비정규직 비율은 최고 수준이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회사의 일방적인 의사에 따라 부당한 보수를 받거나, 해고되는 경우가 많다. 여의도 광장에 모인 노동자들은 '못참겠다, 갑이없자'와 '최저임금 보장하라'는 피켓을 들고 자신들의 뜻을 전했다.

같은 날 노동자들은 집회를 마치고 종로일대로 장소를 옮겨 거리시위를 펼쳤다. 그 와중에 경찰과의 충돌이 빚어졌다. 경찰이 추산한 바에 의하면 2명이 부상을 입고 총 71명이 연행되었다.

집회에 참가한 50대의 한 시민은 "정부의 이런 탄압은 구시대애나 볼 수 있을 법한 공권력의 남용이다. 악법에 시달리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처우는 개선되어야 마땅하다."고 말했다.

이와 비슷한 광경이 노동절을 하루 앞둔 지난 4월 30일에 펼쳐졌다. 전야제에는 '차별철폐대행진'이라고 하는 행사가 벌어지기도 했는데, 이날 노동자들은 4.30 대회 투쟁결의문을 통해 여성 및 비정규직 노동자 차별철폐를 주장했다.

전야제에서는 건국대 학교 본부와 총학생회의 반대로 당초 기획한 행사 장소에서 행사를 진행하지 못하는 사태가 발생하기도 했다. 전국민주노동총연맹(이하 민주노총)은 전야제 행사가 있기 2주 전에 건국대를 전야제 개최장소로 지정했다. 그러나 행사가 진행되기 전날 건국대 본부와 학생회에서 "학생들이 행사로 인해 도서관과 강의실 사용을 제한당할 수 있다"며 행사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이 때문에 행사에 참여하려 했던 사람들은 행사를 학교 '후문'에서 진행해야 했다. 건국대 측의 입장표명을 행사를 주최한 민주노총 측은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김진익 민주노총 서울본부 정책기획장은 "학교 사무처와 얘기가 된 상태에서 총장이 완강하게 거부하고 나서 학교 측이 입장을 변경했다"고 말했다.

이날 전야제에 참여한 사람들은 "학생회에서까지 반대했다는 점은 안타깝다"며 건국대의 대응에 아쉬움을 나타냈다. 특히 건국대는 3년 전인 2006년 4월 30일에 전국비정규직노동자대회가 열린 장소이기도 해 주변의 아쉬움이 컸다.

한편 대학생사람연대도 이번 노동절 행사 진행에 있어 곤욕을 치러야 했다. 대학생사람연대에서는 5월 1일 한국외국어대학교(이하 외대)에서 1박 2일의 숙박을 예정하였으나 대학교 본부 측의 거절로 계획이 무산되었다. 대학생사람연대는 공지를 통해 "서울지방경찰청과 한국외대본부의 방해공작으로 메이데이 1박 2일 일정 때 한국외대에서 잘 수 없게 되었다."

외대에서 잔다는 입장을 우리 홈페이지에서 확인한 경찰이 외대 행정본부에 압력을 행사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이종재 기자 dogilove@hansung.ac.kr

너다르게 사고하라!
니를 표현하라!

2009학년도 제3회 한성인 프레젠테이션 대회

- 취지:** ① 다양한 주제 발표를 통해 참신한 표현 전략 개발
② 논리적이고 구조적인 사고력 확장
③ 현대사회가 요구하는 프레젠테이션 문서 작성과 발표 능력 향상
- 지정 주제:** ① 실현 가능한 '사회적 기업'의 아이디어 기획
② 실천 가능한 '자살 예방' 대책
③ 비주류 문화의 상업적 성공과 대중 문화 흐름의 변화에 대한 견해제출
- 지원 대상:** 한성대학교 재학생 전체
- 일시:** 2009년 5월 4일(월) ~ 5월 15일(금), 오전 9시 ~ 오후 8시까지 접수
- 주제 공지:** 사고와 표현 Writing Center 홈페이지에 게시(<http://writingcenter.hansung.ac.kr>) 지정 주제 가운데 하나의 주제를 선택하여 프레젠테이션 문서(PPT) 준비
- 제출물:** ① 출력물 사본 3부 (레이저당 2개의 슬라이드가 들어가는 유인물 형식으로 제출할 것)
② 원본 프레젠테이션 파일(MS 파워포인트 2003 이상)
- 제출 방법:** ① 출력물은 사고와 표현 연구실로 직접 제출(※ 방문 접수 시 기념품 제공)
② 파일은 이메일로 제출(writing@hansung.ac.kr, 출력물 제출 전 미리 발송)

- 제출 조건:** 각 주제의 조건을 확인하고 이를 준수할 것
- 심사 기준:** ① 논리적 구성 및 전달력 ② 내용의 창의성 ③ 전달 및 설득 방법의 창의성 ④ 슬라이드 구성 능력 등
- 발표:** 5월 18일(일) 개별 연락 및 Writing Center 홈페이지 게시

본선

- 일시:** 2009년 5월 21일(목) 오후 2시 ~ 4시30분
- 장소:** 본선 D.L.C(미래관 B1)
- 심사 기준:** ① 논리적 설득력 및 전달력 ② 내용의 창의성
③ 발표 태도(용의 단정 및 발표 도구 활용 등) ④ 슬라이드 구성 능력 등
- 시상:**
 - 최우수상: 1명 - 상금 50만원
 - 우수상: 4명(단과대학별 1명) - 상금 각 20만원
 - 가작: 8명(단과대학별 2~3명) - 상금 각 10만원

아름다운 사회를 꿈꾸는 '사회적기업'

자본주의 문제의 새로운 해결방안

#아름다운가게는 물건을 재사용해 우리사회의 생태적 변화를 추구하며, 나눔을 통해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우리의 이웃들과 단체들의 공익활동을 지원하는 시민단체이다.

#나눔돌봄센터는 2008년 2월부터 독거노인과 돌봄 서비스가 필요한 저소득층 주민에게 돌봄 서비스를 제공해 왔다. 그리고 돌봄 서비스를 제공해 온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상의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하는 재가장기요양기관이 됐다. 현재 나눔돌봄센터는 전문적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역사회복지에 힘쓰며 일하는 사람들이 모여 기업을 소유한 생산협동조합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들은 모두 사회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 '사회적 기업'이다. 사회적 기업이란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해,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한다. 동시에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판매 등의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기업을 가리킨다.

노동부의 송유나(지역고용사회적기업과) 사무관은 "사회적기업은 소위 자본주의의 한계라고 일컫는 일자리 부족과 사회복지서비스 결핍을 해결하기 위해 등장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사회적기업의 역사가 선진국에 비해 매우 짧다."라며 "다만 우리나라는 IMF 때 경제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사회적 기업에 주목하기 시작했고, 아시아 최초로 2006년 말에 사회적 기업 육성법을 제정했

다. 그리고 이런 사회적 기업 육성법은 2007년 7월부터 시행하고 있다"고 사회적 기업에 대해 설명했다.

우리나라에서 사회적 기업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최근 노동부의 통계를 보면 정부의 인증을 받은 사회적기업의 수는 2007년 52개 사에서 2008년 총 218개 사로 늘었다. 그리고 218개의 사회적기업은 8천개의 일자리를 만들어 내고 있다.

사회적기업이 증가하게 된 이유는 정부의 육성책이 본격화되면서부터이다. 사회적기업으로 인증 받은 기업은 정부에서 재정 지원과 조세 감면 등의 혜택을 받기 때문이다.

하지만 선진국과 비교하면 우리나라의 사회적기업의 수는 매우 적어, 갈 길이 먼 상황이다.

송유나 사무관은 "유럽 및 미국과 같은 선진국들은 사회적기업의 역사가 오래됐다. 특히 영국의 경우 사회적기업의 역사가 200년이나 되고, 5만 5천개의 사회적기업이 활동하고 있다"며 "이러한 영국의 사회적기업은 영국 전체 고용의 5%를 점유하고 있다"고 우리나라에서도 사회적 기업이 좀 더 확대되어야 한다는 말을 했다.

이어 그는 "미국의 경우 사회적기업을 비영리활동의 수익창출에 초점을 두고, 구성원에 대해 이윤 배분을 금지하는 방식이다"며 "우리나라와는 다소 다른 성격을 가졌지만,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는 비영리기업이 170만개에 이르고 있다"고 덧붙였다.

사회적기업의 역할은 일반적으로 네 가지로 구분된다. ▲장애인, 여성가장, 고령자 등 취약계층에게 지속가능한 일자리 제공 ▲지역사회의 요구에 반응하면서 정부나 시장에서 제공하지 못하는 다양한 사회서비스를 발굴·제공 ▲지역사회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활동하면서 지역사회 재건·통합 문제와 함께 기업의 투명경영과 사회공헌을 촉진 ▲사회적기업의 생산품 우선구매 등 착한 소비문화를 조성 등이다.

사회적기업가를 꿈꾸는 사람들을 체계적으로 다듬어주기 위한 지원노력도 활발하다. 노동부에서는 사회적기업 육성을 목표로 전국에 모두 19개 사회적기업가 아카데미를 개설했다. 사회적기업가 아카데미에서는 지역의 특성을 살려 대학과 연구소, 지역 NGO, 사회적기업, 일반기업 등 컨소시엄 형태로 운영하고 있다.

물론 사회적기업이 일자리 창출의 유일한 대책인 것은 아니다. 하지만 사회적기업이 시장 실패와 정부 실패를 시정하고 보완하는 새로운 방안

이 되고 있다는 것만은 확실하다. 송유나 사무관은 "오늘날 사회적기업은 사회적 가치 창출의 신규 사업영역을 적극적으로 확대해, 사회적 가치의 효율적인 생산과 마케팅으로 균형적인 경제·사회 발전에 이바지 하고 있다"며 "우리나라가 앞으로 경쟁력을 갖추고 선진사회가 되기 위해서는 사회적 기업을 조성하기 위해 적극 노력해야한다"고 말했다.

사회적기업은 복지공동체 실현의 주요한 주체가 된다. 복지공동체를 실현하는 사회적기업은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면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정부 제1섹터, 민간기업 제2섹터, 비정부기구 제3섹터라고 부르던 것을 사회적기업에 대해 제4섹터 혹은 독립섹터라고 부른다.

박형신 기자 phstlan@hansung.ac.kr



임선희 기자 의 고전처럼

20대에 다시 떠나는 모험

미국 현대문학의 시초, 『허클베리핀의 모험』

고전문학은 오랫동안 많은 사람에게 널리 읽히고 모범이 될 만한 문학 작품을 뜻한다. 흔히 고전에서는 만고불변의 진리를 찾을 수 있다고 한다. 그리고 고등학생, 대학생에게는 고전을 읽는 것이 필수로 여겨진다. 주제를 진지하고 집중성있게 다룬 고전을 읽으면 통찰력이 생기기 때문이다.

하지만 대부분의 학생들이 '고전' 하면 눈살을 찌푸린다. 고전은 '어렵고 딱딱하고 철학적이다'라고 생각하는 학생들이 많기 때문이다. 하지만 모든 고전이 다 그런 것은 아니다. 마크 트웨인의 『허클베리핀의 모험』은 유쾌한 고전이다.

이 책의 주인공인 허은 더글러스라는 미망인에게 의탁하여 살고 있다. 허은 슴막할 것 같은 평범한 일상생활과 주장방이 아버지에게서 벗어나려고 도망쳐 나온다. 그 후 흑인 노예 짐과 함께 미시시피강을 따라 뗏목을 타고 내려간다. 두 사람은 때때로 육지에 올라가서 젊은이들이 겪은 비련의 이야기를 듣거나, 불량배들의 싸움, 악당들의 사기 등의 경험을 겪게 된다. 이야기는 팔각간 집을 혁이 구출하는 데서 끝난다.

즐거워만 대강 읽으면 주인공이 겪는 모험이 나열된 단순한 '이야기'처럼 보이기 때문에 그다지 흥미로운 모험담은 아닌 것 같다. 게다가 이 책에는 '고전'이라는 타이틀이 따라다니기 때문에 책을 접어들기가 쉽지 않다. 하지만 직접 읽어보면, 계속해서 읽고 싶은 책이 바로 『허클베리핀의 모험』이다.

많은 이야기 중에 기억에 남는 부분은 흑인노예 짐이 독사에게 물리는 장면이다. 짐은 독사에 물리지 비명을 지르면서 뛰어오르고, 술을 꿀꺽꿀꺽 마시기 시작한다. 또한 뱀의 꼬리를 밟고 고기를 한 덩어리 구워달라느니, 방울뱀의 소리는나는 부분을 잘라서 자기 손목에 감아달라느니 한다. 이런 장면에서 짐과 허은 개구쟁이처럼 보인다.

이처럼 『허클베리핀의 모험』에서는 흥미로운 사건과, 그 사건에 대처하는 더욱 흥미로운 인물의 행동이 나온다. 하지만 책 속에 나오는 사건 외에 책을 보는 즐거움을 주는 것이 있다. 바로 '말투'이다. 책의 원작에는 많은 종류의 미국 사투리가



사용된다고 한다. 한국어로 번역이 되는 과정에서 미국 사투리가 우리나라 사투리로 변해 버렸다. "내가 원하는 게 무엇이든 한 번으로 충분하니까, 두 번 다시 부탁할 필요가 없구먼. 저 책이라는 녀석은 참으로 착한데다가 꽤나 영리한 짐승이랑께."처럼 우리에게 익숙한 사투리가 쓰인다. 우리나라 사투리이지만, 사투리는 이야기 속에 유쾌함을 더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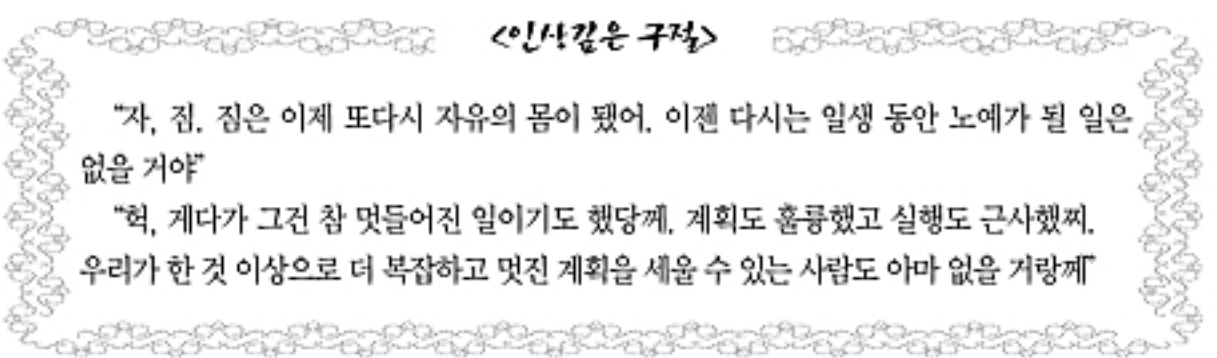
작가 헤밍웨이는 이 책에 대해 '미국의 모든 현대 문학은 마크 트웨인이 쓴 『허클베리핀의 모험』이라는 책 한 권에서 비롯하였다'라고 말했다. 이렇듯 이 책은 미국 문학사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하지만 마크 트웨인이 이 책을 발표한 직후, 미국 메사추세츠 주의 콩코드 도서관 위원회는 『허클베리핀의 모험』을 '쓰레기'로 여겨 도서관 장서 목록에서 삭제해버렸다. 또한 학생들이 읽어서는 안 되는 글서로 지정하기도 했다. 그 이유는 주인공 허이 거짓말과 남의 물건을 훔치는 것을 밥 먹듯이 하고, 어린아이인 허이 속어와 비속어를 많이 사용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몇몇 작가들이 이 책의 문학성을 높이 평가하기 시작하면서, 진가를 인정받기 시작했다. 『허클베리핀의 모험』이 사회에서 인정받기까지의 과정은 책의 내용만큼이나 흥미롭다. 이 책은 단순한 흥미를 제공하는 것 이외에 인간의 인권, 자유, 사회문제 등의 문제에 대해서도 한 번쯤 생각해볼게 한다. 흑인노예 짐이 자유를 찾아 탈출하는 장면에서는 당시 미국의 노예 제도에 대해 생각해볼게 된다. 또한 아버지로 부터 많은 압박을 당한 허이 짐을 탈출해 짐을 만나 시작하게 되는 모험은 곧 '자유'에 대한 열망을 상징한다.

이 짧은 글을 통해 『허클베리핀의 모험』에 대해 설명하려고 노력했지만, 역시 책을 실제로 읽는 것만은 못하다. 기말고사까지 약간의 여유가 있는 요즘, 책을 읽으며 오랜만에 개구쟁이들의 모습을 바라보는 것은 어떨까.

임선희 기자 sunny@hansung.ac.kr



국내 최대의 책 문화 축제, 즐겨보자

에쿠니 가오리, 온다 리쿠 등 인기 일본작가 방한

오는 13일~17일까지 삼성동 코엑스에서 '2009 서울국제도서전'이 열린다. 서울국제도서전은 14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국내 최대의 책 문화 축제이다. 서울국제도서전은 이름에 걸맞게 매년 20만 명이 넘는 관람객이 방문하고 있다. 또한 다양한 프로그램도 매년 진행된다. '2007 서울국제도서전'에서는 외국에서 좋은 평가받고 있는 한국작품을 소개하는 '세계와 함께하는 한국문학', 북한의 출판물을 전시하는 '북한도서전시', 작가와 사진을 찍는 '저자와 사진 한 장' 등의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되었다.

2008 서울국제도서전의 주제는 '책의 확장, 책의 상상력'이고, 슬로건은 '다시, 책에서 시작한다'이다. 이러한 주제와 슬로건에 걸맞게 이번 도서전에서는 다양한 예술 장르에서 사용되고 있는 책의 역할을 살펴본 프로그램이 많이 계획되어 있다. 영화, 디자인, 미술 등과 책과의 만남이다.

'시네마 북라이브러리'전은 책을 원작으로 하는 영화 총 16편을 행사기간 동안 2-4편씩 상영한다. 또한 책을 소재로 한 미술 작품을 전시하는 '북 앤 페인팅', 그림책의 원화를 전시하는 '그림책 원화 전시' 등 다양한



전시가 기획되었다.

전시 외에도 다양한 주제로 세미나가 열린다. '유럽에서 요구하는 예술서적의 조건', '일본의 베스트셀러 경향과 국내 유입 동향, 그리고 전망' 등 어렵지 않은 주제를 다룬다. 관람객은 누구나 세미나에 참가할 수 있다.

서울국제도서전은 매년 주빈국이 바뀌어 진행된다. 작년 도서전의 주빈국은 중국이었다. 올해 주빈국은 일본이다. 때문에 일본의 인기 작가들이 이번 행사를 위해 한국을 방문한다. 『냉정과 열정사이』 『도쿄타워』 등으

로 한국에 많은 독자를 확보하고 있는 에쿠니 가오리와 소설 『퍼레이드』작가인 요시다 슈이치, 『밤의 피크닉』을 쓴 온다 리쿠, 그리고 만화 『꽃보다 남자』의 작가인 카미오 요코 등 유명 작가가 방한한다. 이들은 사인회나 세미나를 통해 한국의 독자와 만나게 된다. 또한 에쿠니 가오리는 소설가 정이현과, 요시다 슈이치는 『마늘로 불타는 신고 산책하기』의 작가인 백영욱과 대담을 한다. 우리나라에서 일본문학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요즘, 일본작가들의 방한은 큰 인기를 얻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행사에서는 일본작가 뿐만 아니라 김연수, 은희경, 김애란, 박현숙 등 우리에게 많이 알려진 한국 작가 총 13명을 만날 수 있다. 김은정 대한출판문화협회 대리는 "독자들을 위해 2009 서울국제도서전에서는 관람객과의 대담, 사인회 등의 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있다"고 말했다.

또한 올해 도서전의 주제인 '책의 확장'에 걸맞게 '제6회 서울국제북아트전'도 동시에 열린다. 출판과 예술의 만남을 볼 수 있는 것이다. 여기서 관람객들은 문자나 한글 자음을 소재로 삼고 있는 북아트스트들의 글자책 등 국내·외 유명 북아트 작가들의 작품을 감상할 수 있다.

관람객들은 이 도서전에서 다양한 책을 할인된 가격으로 구입하는 기회를 얻을 수도 있다. 그리고 대만, 독일, 사우디아라비아, 아일랜드 등 총 20개국 836개 출판사가 서울국제도서전에 참가하기 때문에 다양한 나라의 출판문화도 살펴볼 수 있다. 행사의 입장료는 일반은 3,000원, 초·중·고 학생은 1,000원이다.

임선희 기자 sunny@hansung.ac.kr

졸업앨범 촬영일정 안내

2010 졸업을 맞이한 졸업 예정자 분들께 졸업앨범 촬영일정을 알려드립니다.

① 졸업일정 촬영일정

접수시작 & 실내	9 : 00	10 : 00	11 : 00	13 : 00	14 : 00	15 : 00	합계
5/25 (월)	행정(48)	기계시스템(34)		영어영문(39)	컴퓨터시스템(39)	한국어문(42)	202(5개과)
단체촬영	12시	12시~1시		1시	12시~2시	4시	
5/26(화)	멀티미디어(43)	무용(44)	(11:30) 패션디자인(44)	산업시스템(36) / (13:30) 경제(18)		엔터테인먼트디자인(30)	175(6개과)
단체촬영	2시	11시 30분	2시~4시	1시~1시 30분 / 2시		1시	
5/27(수)	무역(44)	회계(43)	경영(66)	사립영상디자인(34)	정보통신(35) / 지식정보(30)	의류패션(23) / (15:30) 부동산(22)	297(8개과)
단체촬영	10시	11시	1시	2시	2시/4시	3시/4시	
5/28(목)	역사문화(39)	언어메이선프로덕터인터랙션(35)	무용(24)			정보시스템(23)	121(4개과)
단체촬영		11시	1시			4시	

**각 과별 촬영 시간에 최초모이는 장소는 창의관 1층 소강당입니다.

② 졸업앨범 촬영장소 및 촬영내용

창의관 1층 소강당 : 학사복 촬영

창의관 2층 야간 총 학생회실 : 개인 프로필 촬영

우촌관 잔디밭 : 야외 프로필, 조별 단체촬영, 동영상촬영

작년과는 달리 헤어와 메이크업은 개인적으로 준비하셔야합니다.

각 과별 졸업앨범 촬영일정을 확인 하신후, 직업에 종사하시는 분들 혹은 개인적인 사정에 의해 촬영기간에 불참하시는 분들께서는 부재자 촬영 일자인 5월 9일(토)~5월 10일(일)에 촬영해주시기 바랍니다.

각 과별 촬영시간은 꼭 늦지 말고 오시길 바랍니다. 여러 과가 모여 촬영하기 때문에 지연시간 없이 원활한 촬영 진행이 가능합니다. 또 마지막 학생 졸업앨범인 만큼 늦어서 정신없이 찍지 마시고, 여유롭게 찍으시기 바랍니다.

③ 문의사항

졸업준비위원회 사무실 : 02-760-4105

졸업준비위원회 위원장 : 010-6440-4768

사설

'나' 만이 아닌 '우리' 를 생각하자

요즘 방송이나 신문 지면의 가장 앞부분을 차지하는 기사는 단연 '신종 플루' 관련 내용들이다. 이 병은 처음에는 '돼지 인플루엔자'로 불리다가 돼지고기 소비에 대한 거부감을 불러일으키면서 '북미 인플루엔자', '멕시코 인플루엔자', '신종 인플루엔자'에서 '신종 플루'에 이르기까지 참 이름도 다양하게 바뀌었다. 이렇듯 동물의 이름이 붙은 질병이 인간을 공황 상태로 몰아넣은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전 국민을 소고기 공포에 휩싸이게 하면서 어린이들의 손에까지 촛불을 들게 했던 광우병 파동, 잊을 만하면 찾아오는 조류 독감 등이 기억에 생생하다.

소위 신종 플루의 위협 앞에서 있는 인간의 모습은 한없이 나약하다. 현재의 위생성은 감기보다 약하다고 하는 정도이지만 실제로 사람들이 느끼는 두려움은 엄청나다. 그리고 그 공포의 원인은 앞으로 어떤 모습으로 신종 플루가 확산될지 방향을 예측하기 어렵다는 데 있어 보인다. 과학 기술의 화려한 발전과 함께 세상의 모든 질병을 정복한 듯하던 인류가 바이러스 하나에 무너지는 상황은 쓴웃음을 짓게 한다. 어쩌면 과학의 힘을 과신하면서 자연의 순리를 무시한 채, 자기에게 이익이 되는 방식 으로서 동물과 자연 환경을 다루어 온

인간의 오만한 자기중심성이 이런 문제를 불러일으킨 근본적인 원인은 아닐까?

인간이 보이는 자기중심적인 모습은 비단 인간과 동물, 그리고 인간과 환경 사이에서만 아니라,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전반적인 삶 속에 깊이 뿌리내리고 있어 보인다. 치열한 경쟁의 시대를 살아가는 현대인들로서는 '나'에게 닥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것은 물론 중요하다. 그렇지만 자신의 문제에만 몰두한 채 주변을 돌아보지 않는다면 그 폐해는 결국 나에게로 돌아오고 만다는 단순한 진리를 자연은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다.

오월은 계절의 여왕이라고 불리기에 부족할 없는 아름다운 계절이다. 그렇지만 우리 옆에는 경제적, 육체적, 정신적 어려움으로 인해 아직 겨울을 벗어 나지 못한 사람들이 많이 있다.

이 오월, '나'에게로 집중되어 있던 삶의 방식에서 조금은 벗어나서 이 계절만큼이나 따뜻한 마음을 주변에 나누어 주는 여유를 가지기를 기대해 본다. 이러한 마음들이 퍼져나간다면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가 더 이상 험준한 경쟁의 장이 아닌, 내가 힘들 때 위인을 줄 수 있는 인식적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것이다.

언제까지 방관하고만 있을 것인가

지난 5월 2일 촛불문화제 1주년을 맞이해 서울역, 시청 앞 광장, 명동 등 서울 시내 곳곳에서 촛불집회가 열렸다. 촛불문화제에는 중·고등학교에서부터 대학생, 가족 단위의 참가자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이 참가했다. 촛불의 힘이 그 동안 사회문제에 관심을 가지지 않았던 이들까지 거리로 나오게 한 것이다.

아이들의 손을 잡고 나온 부모와 자발적으로 촛불을 들고 거리로 나온 중·고등학생들, 그들이 밖으로 나와 사회 문제에 대해 목소리를 내고 있는 이 시점에 한대년을 비롯한 대학생 연합 단체들은 등극금 관련 집회를 열고 있어 이들과 함께 했다.

방송, 신문, 잡지 등 각종 매체에서 등극금 관련 문제를 심각한 사회문제로 다루고 있고, 각 대학의 총학생회장을 비롯한 대학생들은 삭발식을 진행하는 등 등극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등극금 문제를 비롯한 각종 사회문제의 해결을 위해 떠나 할 것 없이 거리로 나서는 것에 반해, 우리학교는 너무 조용하다. 누구 하나 문제를 제기하는 사

람도, 나서서 관심을 촉구하는 이도 없다.

실제로 4월 30일~5월 1일 양일에 걸쳐 사회과학대 학생회에서 한성참가단을 꾸려 집회에 참여했지만 참여인원은 20명도 채 되지 않았다.

이런 무관심이 계속된다면 내년에는 꼼짝없이 인상된 등록금으로 학교를 다녀야 할 것이다.

지난 겨울, 정주택 총장이 후보 연설 때, 등록금 인상은 불가피한 문제라고 말하며 입장을 밝혔다. 당장 한 학기 후면, 등조위에 들어가 학교측과 등록금 조정에 대해 협상해야 한다. 언제까지 아무런 대처도 하지 않고 강 건너 불구경하듯 손 놓고 바라만 볼 것인가. 등록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집회에 참석하고, 대학생 행동의 날에 자신의 생각을 사회에 전달하는 것은 우리 모두가 나서서 해야 하는 일이다.

체전이나 대동제와 같은 교내 행사를 진행하고 즐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성의 상아탑이라 불리는 대학에 몸을 담고 있는 대학생인 만큼 누구보다 먼저 나서서 우리의 목소리를 내야 할 것이다.



의화정

고객전략체제로의 전환

김형수
(산업시스템공학과 교수)



현재 조금씩 회복의 기미를 보이고 있지만, 종종 대공황시대나 IMF시절과 비교되곤 했던 최근 몇 년간의 난관은 우리 기업들에게 불황기에 대한 인식의 변화가 필요함을 암시하고 있다. 즉, 기업의 불황은 단기적인 현상이 아닌 일종의 주어진 경영환경으로 인식해야 한다는 것이다. 불황을 단기적인 현상으로 본다면 시간의 흐름이나 단편적인 미봉책으로 극복이 가능하지만, 불황이 언제든 찾아올 수 있는 주어진 경영환경이라고 생각한다면 단기적인 미봉책보다는 장기적인 전략적 대응이 필요할 것이다. 현재의 불황기가 지나도 근본적인 경영환경의 변화 때문에 기업이 어렵기는 마찬가지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선구적인 기업들은 제품 중심에서 고객 중심으로, 규모의 경제에서 범위의 경제로, 매스마케팅 전략에서 일대일 마케팅 전략으로 빠르게 전환되어가는 최근의 경영환경에서 고객 관계의 형성과 유지를 전략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역량이야말로 현 시대에 기업이 갖춰야 할 가장 중요한 핵심 경쟁력 중 하나로 인식함으로써 서서히 자사의 경영체제를 완전한 고객전략 체제로 전환해가기 시작했다. 고객전략체제란 고객을 기업의 핵심 자산으로 인식하여 고객들의 손익자본(Customer Equity)을 측정하고, 이를 기반으로 모든 경영활동의 의사

결정과 업무 프로세스를 재편할 수 있는 전략체제를 의미한다. 현재 고객전략에 가장 가까운 학술적, 실무적 용어로는 CRM(고객관계관리: Customer Relationship Management)을 들 수 있을 것이다. CRM은 원래 ERP(Enterprise Relationship Management)나 SCM(Supply Chain Management)과 같이 전사적인 정보시스템의 한 영역을 의미했으나, 현재에는 마케팅, 정보기술, 경영전략 등이 결합되어 고객중심적인 경영전략을 전개하는 일종의 경영 패러다임으로 그 의미가 확대되었다. CRM 전략은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기업의 고객 접점 기능을 담당하는 마케팅, 영업, 고객서비스에 주로 적용되어 왔고, 응용되는 산업 역시 금융, 통신, 유통, 항공, 숙박, 요식업과 같은 서비스 업종에 주로 국한되었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앞서 거론한 최근의 경영환경과 고객지식의 중요성 확대에 의해 CRM 전략은 현재 기업의 모든 조직기능과 전체 산업형태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조직기능관점에서 기업의 본원적 활동이라고 할 수 있는 조달, 생산, 물류, 마케팅, 영업, 고객서비스 부서에서는 이미 CRM 활동을 통한 고객지식을 직접적으로 활용하여 기능별 전략을 전개하고 있다. 또

한, 지원적 활동이라고 할 수 있는 연구개발(R&D), 인사, 재무, IT, 운영 부서에서는 소비자 기반의 신상품개발, 내부고객으로서의 직원관계관리, 고객손자산까지 측정을 통한 기업가치평가, 정보시스템 도입 기준으로서의 고객가치 개선 기여도, 고객중심의 업무프로세스 개선 등의 테마로 CRM이 활용되고 있다.

한편, 고객전략을 중시하는 산업의 형태도 확대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전통적으로 고객지식을 직접적으로 확보하기 어려워 CRM이 불가능하고, 고객대응전략에 있어서 상대적으로 유통업체에 종속될 수밖에 없었던 소비자 제조업체들은 현재 CRM을 가장 활발하게 도입하고 있는 산업 중 하나이고, 오랫동안 고객을 '수요자(demand)'라고 부르며 제품생산에만 집중해왔던 포스코와 같은 대형 B2B 기업들도 CRM 전략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비영리 및 공공단체들도 예외는 아니다. 아무리 영리가 목적이 아니고, 대중들의 안녕과 편의를 위해 존재하는 조직이라 할지라도 그들을 고객으로 인식하여 고객만족을 지향하지 않으면 조직의 존속 가능성 자체가 불확실해지기 때문이다.

현재 각종 NGO, 연구소, 병원과 대학, 정부산하기관, 행정부처에서도 CRM을 주요 사업으로 채택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이러한 논리에서 극단적으로 대한민국 정부도 CRM을 해야 한다. 소비자가 기업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것처럼 국민이 자신의 국가를 선택할 수 있는 시대인 만큼 그 국가가 고객인 국민을 잘 관리하지 못한다면 떠날 수 있는 기회를 비교적 쉽게 찾을 수 있는 우수한 인재들부터 경쟁 국가로 모조리 이탈해버릴 수도 있기 때문이다. 즉, '고객(Customer)'이라는 개념은 'Custom(관복적 행위나 습관)'에서 유래된 단어이기 때문에 고객의 범위를 '나'라는 주체와 유/무형의 교환(exchange) 관계를 갖는 다양한 형태의 개체(Entity)라는 의미로 확장할 수 있고, 이 때문에 CRM은 현재의 치열한 경영환경에서 살아남기 위한 영리기업의 경영전략뿐만 아니라 독립적인 개체간의 관계 형성과 유지에 관련된 인간의 모든 사회적 활동에 적용될 수 있는 개념이라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우리 한성대학교의 CRM 전략은 무엇이고, 독자적 개개인의 성공을 위한 CRM 전략은 무엇인지 생각해 보는 것도 의미 있지 않을까 싶다.

한 줄 댓글

당신이 생각하는 축제란 무엇입니까?

오는 20일부터 3일에 걸쳐 대동제가 열린다.

축제에 대한 학우들의 생각을 엿보기 위해, 학우들에게 축제의 정의를 물어보았다.

신호철 축제는 소풍이다 - 하는 사람의 보여주기 식이 아닌 서로 느끼고, 호응하는 것이라 생각해요. (경통3)

이현준 축제는 열정이다. 축제를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해서 열정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참여하는 모든 구성원이 열정을 불태워 축제를 재미있게 이끈다면 축제를 성공적으로 이끌어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계3)

김호성 축제는 시작된다 - 젊음을 표출할 수 있는 표현이자 방법으로 다시 하나가 되어 나아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행정2)

정우진 축제는 교훈이다 - 축제기

간 속속 생겨나는 커피들과, 삼삼오오 모여 만든 술판, 그리고 멋진 공연은 저와 같이 멀리서 지켜보는 아웃사이더들에게 '아 인생 외롭지 않게 열심히 살아야겠구나'라는 교훈을 줍니다. (경영2)

이근원 축제는 상징이다 - 축제는 학교를 대표하는 하나의 상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축제를 보면 그 학교 학생들의 열정과 패기, 그리고 학교가 학생들에게 쏟는정성 그 모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정통2)

오연우 축제는 나눔이다. 축제는 젊음 열정 환희 즐거움 기쁨 등등을 모든 한성인들과 함께 할 수 있는 나눔의 의미를 가지고 있지요. 물론 저는 축제에

관심 1g 없지만 문화상품권이 훈훈해 보여서 댓글을 남겨 봅니다. (경영3)

김명래 축제는 만남이다. 신입생부터 재학생, 복학생 그리고 졸업생까지 서로 알아갈 수 있는 자리라 생각합니다. 즐겁고 재미있게 보내는 본래의 의미도 있지만 상호간의 교류가 이뤄지고 훈훈한 사이가 되는 자리도 되지 않을까요? (컴공4)

김명선 축제는 문쓰는 곳이다. 축제에서 파는 파전과 동동주는 너무 비싸다. 또 야바위 등은 지나칠 수 없는 악마의 유혹이다. 솜사탕은 꼭 먹어야 하는 필수 품목이며, 누나들이 많은 만화 동아리에서 파는 열쇠고리는 꼭 사줘야 하

는 아이템이다. 축제때 집에서 설치하지고 용돈 받아서 꼭 많이 사먹어야지!!

'한줄댓글' 관련 게시물은 '낙산의 메아리'에 매주 업데이트하고 있습니다. 주어진 주제에 대한 학우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달아주시면, 가장 성의있는 댓글을 골라 작성자에게 문화상품권을 드립니다.

상품 수령시 연락할 수 있도록 댓글 뒤에 학과 및 학년을 꼭 기재해 주세요. 학우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현대 서양사회와 이주민

| 2009. 4. 20 | 605p | 978-89-89101-61-1 | 20,000원

저자 : 박 단 외 6인

국내에서 이민자 문제에 대한 논의가 그 어느 때보다 뜨겁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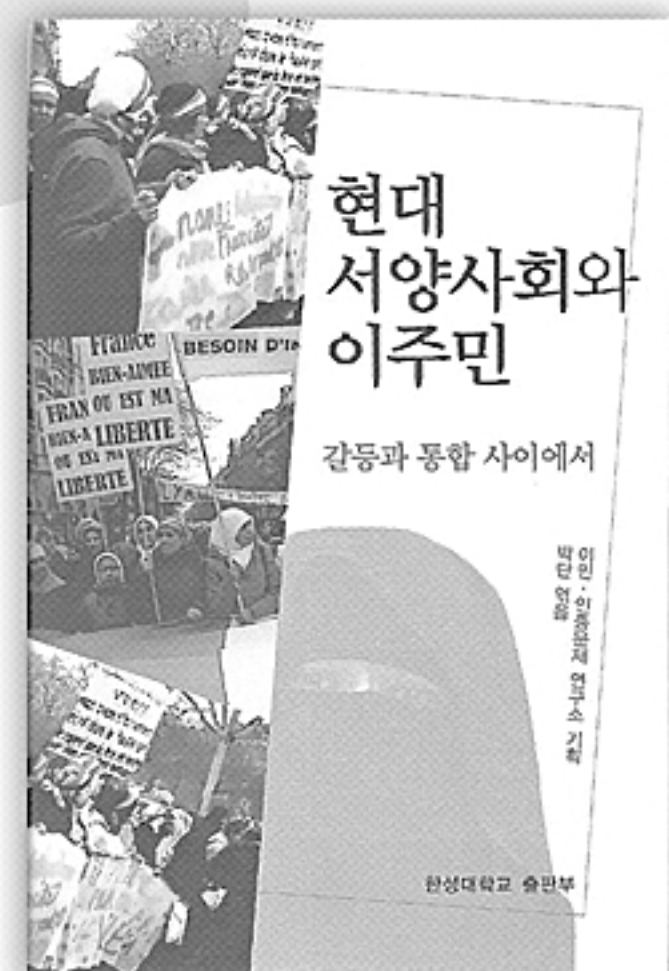
그러나 정작 우리보다 먼저 이민문제를 극심하게 겪었거나 겪고 있는 서양 각국에 관한 본격적인 연구는 거의 진행되지 않고 있다.

본서는 서양의 이민문제를 그 역사에서부터 오늘날의 사회·문화적 갈등, 그리고 그 해결방안으로서의 통합방식에 이르기까지 이민 현상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책이다. 특히 본서는 서양의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도 오늘날 이민문제로 내용을 겪고 있는 프랑스, 독일, 영국, 네덜란드, 호주, 미국을 택하여 해당 국가의 전문가들이 철저히 분석한 학술서이다.

본서의 특징은 무엇보다도 인문학자들에 의해 이민문제가 분석되었다는 데 있다. 그동안 한국에서의 이민문제 연구가 주로 사회과학자들에 의해 법적, 제도적 혹은 정책 수준의 논의에 머물러 있었다면, 본서에서는 이민문제를 서양 역사를 통해 분석하면서, 그 사회적, 문화적 갈등에 주목하고, 각국이 주로 자국의 역사와 전통에 바탕을 둔 통합모형을 추구하고 있으나 여전히 수많은 시행착오를 경험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연구에 바탕을 두고 본다면, 현재 국내에서 정부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언론, 학자들에 의해 주장되고 있는 '다문화정책' '다문화사회'에 대한 추구는 좀 더 치밀한 검토를 거쳐야 할 것으로 보인다. 우리보다 훨씬 긴 이민 역사를 갖고 있는 나라들에 대한 철저한 분석은 우리나라의 '성급한' 정책결정과 시행에 반면교사로서 충분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성대학교 출판부

신간도서안내



사람을 만나다 외교통상부 FTA교섭국의 행정사무관 이동섭 졸업생

“자신에 대한 믿음과 자신감이 중요하죠”

우리학교 영문학과를 졸업하고, 현재는 외교통상부 FTA교섭국 FTA상품과의 행정사무관을 지내고 있는 이동섭(영어영문 94학번) 씨. 어릴 적부터 공직자가 되고자 했던 꿈을 이룬 그를 만나보았다.

이동섭 씨는 현재 외교통상부 통상관료로 일하고 있다. 외교통상부에 있으니 외교관의 길을 갈 법도 하지만, 아직까지 그의 관심은 통상전문가가 되는 것이다.

이동섭 씨는 작년까진 상교섭 본부에서 APEC업무를 총괄하는 과에서 근무했다. 그의 주 임무는 APEC사무국의 재정운영과 한국이 제안한 APEC사업 예산을 따내는 일이었다.

그는 “처음이라 어설픈 점도 많았지만 외교부의 업무를 잘 배울 수 있었다”며 “올해는 FTA국으로 자리를 옮겨서 각 국가와 FTA상품협상을 담당하는 곳에서 일하고 있다. 현재는 한-ASEAN FTA 그리고 APEC 내에서의 몇 가지 주요의제를 다루고 있다.”고 업무에 대해 설명했다.

이동섭 씨는 좀 더 넓은 무대에서 일하고 싶었기에, 별다른 고민 없이 고시공부를 시작했다고 한다. 그의 고등학교 때의 꿈은 외교관이었지만, 대학 시절 이후엔 통상전문가

로 바뀌었다.

그는 “정부 정책을 직접 입안하고 고민하는 중앙부처의 관료가 되는 것이 꿈이었고, 통상 전문가로 일하는 것이 여러모로 유익할 듯 보여 이 길을 선택하게 되었다”며 “이 길은 나에게 ‘운명의 이끌림’과도 같았다. 공교롭게도 외교통상부로 발령받아 통상업무를 맡아 어린 시절의 꿈과 대학시절의 꿈이 절묘하게 조화를 이루었다.”고 말했다.

행정사무관으로 일하면서 가장 자부심을 느끼는 때에 대해 이동섭 씨는 “아직 공직사회의 새내기나 다름없지만, 종종 관제부처 공무원과 함께 국가를 대표해서 회의에 가는 때가 되는데, 내가 하는 일을 외부에서 인정해 주고, 고마워하기도 한다. 그 때 내가 대한민국 사무관이라는 것이 흐뭇하다.”고 답했다.

대학 시절, 이동섭 씨는 여러 분야의 수업을 들으면서 사고의 지평을 넓히려 노력했다. 영문학과라서 문학과 철학에 관심을 가지려 했었고 영어 공부에도 많은 투자를 했다. 그는 “고시공부는 주로 졸업이후에 했다. 생각해보면 학교를 다니면서도 영어, 경제학, 행정법 같은 고시의 기본과목은 어느 정도

공부할 수 있지 않을까 한다.”며 “아무래도 내가 한 가장 큰 노력은 스스로에게 실망하지 않으려고 항상 자존심을 가지고 뚜렷하게 생활해 온 것이 아닐까 한다. 살아가는데 있어서 자기 자신에 대한 믿음과 자신감은 무언가를 하고자 하는데 있어 아주 결정적인 힘이 되기 때문이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그는 “우선, 대학교 저학년이라면 사고의 지평을 넓힐 수 있도록 다양한 경험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어학 공부도 계속 하지 말아야 하며,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전 분야에 걸친 기본소양을 갖추도록 노력하면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며 “충분한 소양을 쌓고 2년 정도 의무고시를 준비한다면 충분히 외교관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외교관이 되고나서 그 이후의 노력이 더 중요함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한 요즘 행정고시나 의무고시는 공직적격능력시험(PAST)으로 1차 시험을 치른다. 그의 경험상, 평범한 대학생 수준의 건전한 독서량과 사고능력을 갖추고

있으면 어렵지 않게 해결할 수 있는 시험이라고 한다. 이동섭 씨는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독서와 현장경험을 통해 많은 경험을 쌓아 나아가기를 바란다. 한 가지 더 고시공부 방법과 관련하여 말하자면 ‘확신을 가지고 열심히’ 한다면 누구나 합격할 수 있다.”고 후배들을 격려했다.

덧붙여 “우선은 대학생활을 만끽하길 바란다. 기본적으로 학업에 충실하고, 우리 사회에 대해서 고민도 해보고, 사랑도 하고, 친구들과 놀러 다니기도 하는 등 젊은 날을 보람차게 보냈으면 한다. 다만, 삶에 대한 목적의식과 꿈을 머릿속에서 떠나보내서는 안 될 것이다.”고 바람을 전했다.



전라 기자 tvxq@hansung.ac.kr

기자수첩

대학생의 고통을 그들은 알까

현재 우리나라의 대학진학률은 80%가 넘는다. 이 사실은 등록금 문제가 대학생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문제이기도 하다. 이 점을 시사하고 있다. 원래 학교라는 곳은 개인의 이익을 위한 곳이 아닌, 학생들이 발전을 위해 존재하는 곳이다.

하지만 현재 많은 대학들은 학생이 아닌, 재단의 이익을 위해 수많은 저립금을 쌓아만 놓고 있다. 해마다 등록금은 인상되고 있지만 (물론 이번 학기에는 많은 대학들이 등록금 동결을 밝혔지만) 교육환경은 그다지 변하는 것이 없다.

대학이 이러한 사적이익을 위한 곳이 되어가고 있기 때문에 많은 대학생과 시민단체들은 정부에게 이러한 환경을 개선하라는 요구를 한다. 이번 학기의 절반이 지나갔지만, 학기 내내 등록금 문제는 화제였다. 등록금을 내지 못해 학교에 다니지 못하는 학생이 자살하는 사건을 시작으로, 최근에는 여대생이 정부에 등록금문제를 해결하라고 삭발을 한 사건까지.

하지만 이러한 학생들의 요구에 정부가 보여준 행동은 고작 삭발을 하며 시위하던 대학생들을 연행한 것이었다. 이명박 대통령은 후보시절 ‘반값 등록금’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무려 50%이상의 지지를 받고 대통령으

로 뽑혔지만, 자신이 후보시절 내세웠던 공약에 대해서는 지키려는 노력조차 하지 않는다. 대신 경인 대운하, 부자 감세 등의 정책에 대해서는 무조건 밀어붙이고 있다.

이러한 정부의 태도에 반발해, 요즘 대학생들은 자신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가장 정치에 관심이 없다는 20대 대학생들이, 자신의 등록금 문제 때문에 길거리로 나온 것이다.

이제 대학생들은 더 이상 자신과 관련된 문제를 경시하지 않는다. 또한 이제는 대학생은 운동권, 비운동권 등 이분법적으로 구분하지 않는다. 정치에 대한 관심, 등록금에 대한 관심은 이제 일반적인 것이 되어가고 있는 듯하다.

얼마 전 한겨레 기획위원인 홍세화씨는 칼럼에서, 파리1대학 대학생인 자신의 아이가 학년 등록을 하면서 낸 돈은 약 60만원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우리는 선진국의 이러한 교육환경을 언제까지 부러워만 해야 할까.



임신희 학생 · 문화부 부장

대학원 인터뷰 유니버설 디자이너가 되고 싶다는 임운정 원우를 만나

“만인을 위해 디자인하고 싶어요”



유니버설 디자인(Universal Design)이란 ‘모두를 위한 디자인’을 내세운, 장애인 및 노약자와 같은 소외계층까지 아우르는 제품 및 디자인을 의미한다. 기쁨 이런이를 위해 엘리베이터의 버튼을 낮춘다거나, 장애인을 위

하여 문턱을 없애는 디자인이 그런 예이다. 한국에서 유니버설 디자인은 아직 걸음마 단계이고, 주위에 쉽게 찾아볼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대학원에 재학 중인 임운정 원우(미디어디자인학과)는 그런 유니버설 디자이너가 되는 것이 소망이라고 밝혔다.

그녀는 대학원을 다니면서 그 꿈에 가까워지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임운정 원우가 속한 미디어디자인학과는 디자인의 원리와 관련이론의 연구를 통해, 다양한 실무 분야를 혼련하는 학과이다. 하루도 쉬지 않고 학업에 정진하고 있는 그녀는 입학 여부를 놓고 많이 망설였다고 한다. 임운정 원우는 “취업한 친구들이 실무 경험을 쌓는 것을 보면 부러울 때가 많지만, 광고를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디자인 이문을 배울 수 있는 기회를 놓치고 싶지 않았다.”며 대학원 진학의 이유를 밝혔다. 또 그녀는 “내가 배운 것이 실제로 어떻게 쓰이는지를 알 수 있어서 좋은 경험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대학원에는 나이와 직업을 불문하고 다양한 사람들이 학업을 위해 모인다. 그 중에는

직장생활과 대학원을 병행하는 이도 있다. 임운정 원우는 “그분들은 어떤 일을 하던 자격이 충분하다고 생각한다. 열심히 살아가는 그들을 보며 많은 것을 배운다”며 “사람이 살아가는 다양한 모습들을 볼 때면, 나 자신의 건물이 넓어지는 것을 느낀다”고 대답했다. 또 그녀는 원우들과 정보를 공유하는 시간이 즐겁다고 한다.

하지만 그렇다고 임운정 원우가 우물 안의 개구리는 아니다. 그녀는 학업에 열중할 뿐만 아니라 전시회를 가지거나 공모전에 참가하기도 했다. 그녀는 이미 수차례 상을 받은 경력도 있다. 올해 들어서만 국제 그래픽 공모전인 ‘Tokyo TDC Annual Awards’에서 수상해 일본에서 두 차례 전시회를 열기도 했다. 또 3월 중순에는 국내 유수의 기성작가들과 한일 교류展 ‘동행’ 12인 전시회에 참여하기도 했다. 그녀의 최근 수상경력을 살펴보면 유독 국제전이 많다. 이에 대해 임운정 원우는 “우리나라를 세계에 알릴 수 있는, 그런 영향력이 있는 디자이너가 되고 싶다”며 “개인적으로는 세계 속 한국의 인지도를 높이고

싶다”고 말했다.

임운정 원우는 공모전에 응모한 횟수만큼 수상하지는 못했다고 했다. 그녀는 수많은 공모전을 거치면서 많은 좌절을 했다고 말한다. 그녀는 “매번 수상에 실패할 때면 스스로에게 내 디자인이 잘못된 것일까라고 반문했다”며 “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자책하지 않는다. 다른 작품과 비교하여 개선점을 찾을 수 있을 정도로 광고가 좋다.”고 웃으며 대답했다.

그녀는 “당장 할 일들이 많이 쌓여있는데 무엇을 우선 처리해야 할지 모를 때면 마음이 답답하다. 하지만 이겨낼 수 있는 시련이라고 생각하면 마음이 가벼워진다.”고 대답했다. 또 그녀는 “교수님과 선배들의 조언도 많은 도움이 되었다”며 감사의 말씀을 전했다. 임운정 원우는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자신의 만족만을 위한 디자인보다는 소외된 이들을 위해, 그리고 우리나라를 알리는데 일조할 수 있는 디자인을 하고 싶다.”고 대답했다.

이종재 기자 dogilive@hansung.ac.kr

Advertisement for 'Hansung University's Voice' featuring a megaphone icon and text about student voices and university issues.

Table with 5 columns: Date (May 11-15), Meal Type (Breakfast, Lunch, Dinner), and various food items with prices. Includes a note about menu changes at the dining hall.

Advertisement for 'Newspaper' (가로 세로) featuring a grid of numbers and text about subscription information and contact details.

인도 현대 미술 국제기획전 '세 번째 눈'

미술작품을 통한 인도 사회 엿보기

인도 전통 장식인 빈디(Bindi)를 국내에서 선보여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국립현대미술관에서 주최한 '세 번째 눈을 따라' 인도 국제 미술 기획전은 오는 6월 7일까지 계속된다. 이번 국제 기획전에 대해 국립현대미술관 이은수(홍보교류팀) 미술전문 해설위원은 "세 번째 눈은 양미간에 붙이는 룻방을 모양을 말하며 지혜와 본질을 간파하는 제3의 눈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이번 전시는 국내에서 열린 인도 현대 미술 관련 전시 중 최대 규모이다. 이은수 해설위원은 "최근 몇 년간 많은 미술관들은 독일, 프랑스, 중국 등 몇몇 국가들의 작품을 주로 전시했다. 하지만 최근 많은 사람들이 인도에 대해 새로운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고, 그 첫걸음으로 인도 현대미술을 소개했다"고 전했다.

전시장 구성은 '프롤로그-여정들', '창조와 파괴-도시풍경', '반영들-극단의 사이에서', '비옥한 혼란', '에필로그-개인적 집단적 기억과 미래' 등 5개의 소주제로 이루어져 있다. 이번 전시에는 '인도의 데미언 허스트'라고 불리는 작가 수보드 굽타가 참여했으며 인도 작가 27명의 설치, 영상, 사진, 회화 작품 110여점이 모였다.

전시작품들은 현대 인도의 사회, 경제, 문화의 변화를 반영하고 있다. 전시작품들은 인도의 역사와 전통문화를 표현하고 있어 인도 사람들의 생활 모습을 잘 보여준다. 또한 도시 문예인 빈부격차를 작품을 통해 다양한 방법으로 표현했다. 이은수 해설위원은 "인도라는 나라가 원래 너무나 각양각색이기 때문에 인도 미술도 다양한 특징을 갖고 있다"며 인도 미술 특징에 대해 설명했다.

전시관 입구에 들어가게 되면 한가운데에 거대한 코끼리가 덩그러니 누워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코끼리는 인도 작가 바르티 케르의 작품 '피부는 자신의 것이 아닌 언어를 말한다'로 광섬유와 수지로 만든 실물 크기의 코끼리이다. 바르티 케르는 인도 여성이 눈썹 사이에 붙이는 빈디를 모티프로 작업해 온 작가이다. 때문에 코끼리 몸 전체에 빈디 모양이 새겨 있다. 이은수 해설위원은 "하늘을 응시하고 있는 코끼리는 밤금 쓰러진 것인지, 아니면 일어선 것인지 분명하지 않다. 이것은 인도를 상징하는 코끼리가 고속성장의 과속을 이겨내지 못하고 주저앉은 모습으로, 혹은 인도 경제도약을 위한 에너지를 발산하려는 모습으로 해석되기도 한다. 이에 대한 해석은 관람자의 몫이다"라고 설명했다.

인도 현대미술의 대표작가 수보드 굽타는 인도 가정에서 많이 사용하는 주방용기 스테



▲바르티 케르의 '피부는 자신의 것이 아닌 언어를 말한다'의 작품

인리스 스틸 식기를 소재로 삼아 식기를 쌓아 올려 인도 사회 모습을 표현했다. 그는 인도 사회의 물질만능, 도시화 등 인도가 안고 있는 상황을 역동적으로 나타내 세계인의 공감을 얻고 있다.

지티시 칼랏은 거대하게 확대한 1루피 동전을 전시했다. 이에 대해 이은수 해설위원은 "1루피 동전은 인도의 급격한 경제 성장으로 발생한 빈부 격차를 동전의 양면처럼 안고 사는 인도 현실을 말해준다. 몇몇 인도는 세계 10대 갑부로 등극하는 반면, 3억명에 달하

는 인도인은 1달러도 채 되지 않는 돈으로 살아간다."고 인도 사회에 대해 설명했다. 지티시 칼랏의 부인 레나 사이니 칼랏은 종교 갈등이 첨예한 인도·파키스탄 분쟁의 죽음과 희생, 역사적 상처를 시각화했다. '주름/윤곽'은 여성의 빛이 분광 때마다 바뀌는 국경선을 그려 '어머니 인디아'로 불리는 모국의 상처를 보여준다. '동역'라는 제목의 초상화 연작은 분쟁 실종자들의 이름을 인도 각지의 여러 다른 언어로 새긴 고무도장을 모아 만들었다.

투크랄과 타그라 콤비의 합작품 '팬텀 IX-B'는 그래픽 이미지처럼 화려하고 깔끔하다. 인도 젊은이들이 갈망하는 화려한 도회적 삶의 형태를 보여줌으로써 자본주의적 유희와 일종의 아메리칸 드림에 도취된 인도인의 단면을 보여준다.

마지막으로 아블 도디아는 힌두 전통 혼례식의 일부분을 일컫는 '삼타파디(Saptapadi)' 연작을 선보인다. 상호 관련성이 없는 이미지들이 병렬돼 강한 시각적 효과를 발휘한다.

아울러, 인도 전시회와 함께 다양한 부가적인 행사도 전시장에서 펼쳐진다. 행사 내

용으로는 5월 9일 토요일 오후 3시 30분부터 인도 전통, 무용, 인도 의상전, 인도음악 등으로 구성된 인도 문화 공연을 개최한다. 그리고 일일장터가 같은 날 오전 11시~오후 5시까지 열린다. 또한 5월 2일, 16일, 30일에는 인도 영화 상영, 해나그리기(민디 포함), 요가 따라하기 등 인도 관련 행사들이 차례롭게 진행될 예정이다. 그리고 5월 한 달간 매주 금요일에 인도의 종교, 역사, 신화, 철학, 미술 등 주제별 강연회가 열린다.



▲지티시 칼랏의 '1루피 동전' 작품

김명하 기자 kmh77@hansung.ac.kr

한국 in 외국인

2009년 인천 방문의 해

중국 문화 체험, 차이나타운으로 오세요



▲ 한국인 관광객들로 북적이는 차이나타운의 모습

중국 여행을 갈 시간이 없거나, 경비가 부족해 중국 여행을 해보지 못했다면 인천 차이나타운에 가보는 건 어떨까. 중국 여행을 통해 느끼는 생생한 체험보다는 못하겠지만, 중국 문화에 대한 당신의 감각을 해소시켜줄 것이다.

차이나타운은 126년의 역사를 가진다. 차이나타운 역사는 임오군란 이후 청국 영사관이 세워지고, 청나라의 상인들이 들어오면서 시작됐다. 이후 중국과 정교하게 교류하면서, 화교의 인원이 증가했고, 북성동 일대는 '청관거리'로 불리기 시작했다.

이후 화교는 중국에서 가져온 식료 잡화, 소금, 곡물들을 팔고, 우리나라의 사금 등을 구입하며 상권을 넓혀갔다. 청관거리에는 식당과 무역상들이 자리 잡아, 인천 최대의 상권으로 이름을 떨치게 되었고, 1만여 명이 북적이는 작은 중국으로 발전하게 되었다.

지금의 차이나타운은 그 규모가 많이 축소되었고, 한국인들과 화교에 의해 유지되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차이나타운에는 중국 음식과 기념품이 있어, 중국 문화를 체험해보려는 관광객들로 북적이고 있다.

아이들과 함께 온 김지나 씨는 "인천에서 관광지로 유명한 곳이 차이나타운이라 한 번 와보았는데, 아이들이 옛 놀이를 하는 모습을 보니 추억이 떠오른다"며 차이나타운에 있는 마작류의 놀이를 보면서 즐거워했다.

차이나타운에 한국 관광객들이 많이 오면서, 한국인들이 화교에 대해 가지는 편견이 많이 완화되었고, 화교와 한국 사람간의 어색함도 많이 사라졌다. 김관용 부부는 "예전에 왔을 때는 중국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을 어려워했는데, 요즘에는 편하게 대하는 것 같다"며 한국 사람에 대한 화교의 태도 변화에 대해 말했다. 또한 부엔부 식당 주방장 요리는 "차이나타운이 인기를 끌면서 한인 사장들이 많이 생겼다"며 차이나타운의 음식점이라고 모두 화교가 운영하는 것은 아니라고 말했다.

차이나타운에서 관광객의 시선을 가장 많이 끄는 것은 자장면, 공갈빵, 만두, 월병 등의 음식이다. 그 중에서도 자장면의 경우 원조로 알려진 식당인 '공화춘'의 맛을 보려는 관광객들이 줄을 서서 기다린다. 현재 가게를 운영하고 있는 건물은 새로 만든 건물이고, 옛 공화춘 건물은 현

재 등록문화재 246호에 지정돼 자장면박물관으로 만들 예정이다.

중국에 대해 보다 더 알고 싶은 사람들은 한중문화원에 가는 것을 추천한다. 한중문화원은 차이나타운 오른쪽에 있고, 무료로 관람이 가능하다. 한중문화원에서는 한국과 중국의 문화를 소개해주고 있다. 송미진(한중문화원) 직원은 "2층 한중문화전시관에서는 한국과 중국의 역사, 문화, 경제, 사회, 생활상 등을 알려준다. 또한 인천에서 일어난 중국과의 문화 교류 대해서도 소개하고 있다."고 한중문화원에 대해 설명했다.

한중문화원 3층에 있는 우호 도시 홍보관에 가면 현지 11개의 중국 도시로부터 받은 다채로운 기념품이 전시돼 있다. 또한 중국 전통의상을 준비해 관광객들이 무료로 입어 보는 코너도 마련했다. 한편 한중문화원 4층에서는 문화 공연이 열리며 이번 23일 토요일 2시~3시, 5시~6시에는 중국의 경극단을 초청해 백사전, 삼거리, 패왕병희 등을 공연할 예정이다.

차이나타운에서는 매년 10월에 '자장면 축제'와 '인천-중국의 날 문화축제'가 열린다. 자장면 축제에서는 우수면 뽑기, 수타면 뽑기 등 시범 공연과 삼색 쥬리 자장면, 한방 자장면 등 이색 자장면의 시식행사가 이루어진다.



▲ 웨이하이가 기증한 차이나타운의 대표적 상징물 '패루'의 모습

인천-중국의 날 문화축제는 한중수교를 기념해 열린다. 이 축제에서는 국제 유희춤·사자춤 대회와 함께 경극, 중국 전통 의상 패션쇼 등 다양한 중국문화에 공연이 펼쳐진다고 하니, 10월에 차이나타운을 방문하면 다양한 공연을 관람할 수 있다.

하지만 차이나타운의 일부 도로가 차도와 인도의 구분이 없어 관광객들에게 불편함을 주고 있다. 동생과 놀러온 전진 실씨는 "차이나타운이 생각보다 중국의 분위기를 잘 나타내는 것 같아 좋았다. 다음에 와도 좋은 경험이 될 것 같다"며 하지만 "차도와 인도의 구분을 확실하게 하면 관람하는데 더 편리할 것이다"고 차이나타운의 교통 문제가 개선되기를 희망했다.

차이나타운을 가기 위해서는 수도권 지하철 1호선 중점 인천역에서 내려 바로 앞에 있는 '패루'로 들어가기만 하면 된다.

박형신 기자 phs1lan@hansung.ac.kr

현재 북한에는 고등교육기관으로 약 280여 개의 대학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뿐 아니라 북한은 체육 및 예술전문학교와 기술계 전문학교가 약 600여 개 있다고 주장한다.

북한의 모든 대학은 우리식으로 말하면 국립대학이다. 대학은 국가인재 양성기관이므로, 모든 대학생들은 전액 장학금과 함께 매월 일정한 용돈을 받게 된다. 대학 진학 희망자들이 많으나 고등학교 졸업 후 바로 대학에 들어갈 수 있는 소위 '직통생'은 전체 대학생의 10%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직통생을 제외한 대부분의 학생들은 의무교육인 고등학교 졸업 후 의무복역을 마쳤거나 사회생활을 하는 과정에서 학력과 당성, 사회적 능력을 인정받은 사람들이다. 그러다 보니 대학 입학시험의 경쟁률도 꽤 높은 편이고, 재수생도 있다.

그렇다면 이런 북한 대학생들의 생활은 어떠한가. 이에 대해 김귀옥(교양교육학부) 교수는 "북한의 대학생들은 대개 기숙사생활을

많이 한다. 아침 6시경에 기상하여 식사 후 8시 부터 학부에서 편성한 90분 강의들 4개 정도 소화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북한 대학에서는 학생들끼리의 비정규적인 활동이 공식적으로 금지되어 있다. 그 예로, 북한 대학에는 동아리 제도가 없다. 남한 대학들의 외국어, 운동, 종교, 여행 동아리처럼 자신의 취미, 성격, 취향에 따라 이루어진 동아리는 북한 지도층의 입장에서 보면 '반당 종파주의'의 온산인 분파' 모임들로서 속칭 '대상들이기' 때문이다. 게다가 신입생 환영회라는 것도 없다. 남한의 대학생처럼 환영회를 열고 마술, 소주, 맥주 등을 마시며 노는 것을 북한 대학생들은 꿈에서조차 상상할 수 없는 일이다.

그렇지만 북한 대학생들에게도 축제는 있다. 물론 남한 대학과 같은 축제는 아니다. 축제는 오직 정치적인 축제로서, 김 부자(父子)의 생일, 북한노동당 창건일 등 정치적인 기념일에 맞춰 김 부자(父子)와 노동당을 찬양

하고 흠모하는 '총성의 노래 경연대회'나 '총성의 편지 이어달리기', '총성의 시낭송 모임' 등 정치선민이 강조되는 것들이다. 이런 행사들은 대학생들이 자원 하는 것이 아닌 국가가 동원하는 형식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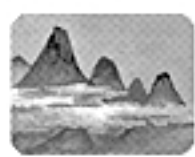
북한 대학생들에게 자치활동의 꽃인 MT라는 것은 찾아볼 수 없다. 남한 대학생들이 학기 초마다 반박이나 콘도에 가서 MT를 한다는 것은 북한 학생들에게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러한 개념은 북한에서는 '풍기문란'에 해당한다. 야외에 나가서 친목을 다지고, 술자리를 가지는 것은 '부르주아적 근성'의 표면일 뿐이다.

그러나 북한의 대학생들에게도 숭동이 트이는 기회가 있다. 김귀옥 교수는 "대학생들은 연간 사회봉사를 하는 것이 의무화 되어 있다. 그들은 농촌이나 사회 건설 현장에 지원원 나가는데, 바를 때에는 몇 개월 씩 현장에 나가있기도 한다."며 "많은 대학생들이 그곳에서 연애를 한다고 한다"고 덧붙였다.

북한의 대학생은 공부도 사회봉사도 권리이자 의무이기 때문에, 스스로 필요에 의해 공부하고 일하는 능력이 길러지기 어렵다. 그러다보니 국가나 당이 요구하는 관료형 지식인이 많고, 창의적인 지식인은 배출되기 어려운 환경에 놓여있다. 또한 북한 사회 체제가 국제 사회에서 고립되어 있어, 세계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지식 체계와 대학 문화를 공유하기가 어렵다.

그러나 북한 대학이라고 해서 문제집만 있는 것은 아니다. 우리와는 다르게 북한 대학생들은 남다른 막연하고 육체노동에 익숙하다. 또한 북한 교육 시스템이 이론과 현실의 연계성을 중시해, 대학생들은 이론뿐만 아니라 자기 분야의 실무에 밝은 편이다. 또한, 졸업 후 진로가 보장되어 있어서 미래에 대한 두려움 없이 공부할 수 있는 것이 장점이라고 할 수 있다.

전미라 기자 tmq@hansung.ac.kr



동양화 Holic

경계를 넘는 미래의 상상력(II)



▲ 정준미 작 / 한(한)8-6 / 180x70cm / 천에 수묵 2009. Seon8-6 / 180x70cm / Oriental ink on cotton / 2009.

패션의 역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중세 말기부터 복식은 인간의 차별화를 위해 사용되었다. 예를 들어보자, 신인상주의 화가 쇠라가 그린 '그랑자트 섬의 오후'는 당시 패션의 대중화 현상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사례다. 패션의 대중화에 맞서 예술의 가치를 올렸던 사회 개혁가 윌리엄 모리스(William Morris)의 예술 공예운동은 고대에서 16세기에 이르러까지 예술의 영역이었던 패션을 다시 한 번 예술의 힘으로 복원하려는 움직임이었다.

1920년대 추상표현주의가 득세하면서 신체를 규정하는 시간이 선에서 면으로 이동했고, 1960년대 팝 아트와 옵 아트의 등장은 패션의 언어를 더욱 시각적으로 풍성하게 기회를 만들어 주었다.

'팝 아트'스트 앤드 워홀의 캠벨 수프 그림은 종이로 만든 드레스로 변모하면서 소비사회의 예술의 일회성을 극명하게 드러냈다. 패션은 이후로도 미술의 다양한 접근법을 차용하면서, 디자인이 특유의 미감을 실현한다.' - 김홍기 패션큐레이터

이러한 맥락에서 본 작품은 동양적 사상으로부터 발현되는 수묵에서 출발하지만, 틀에 얽매인 형식에서 벗어나 현대화된 자신의 실험방법으로 찾아가고 있다. 지평의 새로운 경계를 찾아가고 있는 것이다. 즉, 종이나 유약, 마 등의 다양한 재료를 통하여 컨템포러리(contemporary) 아트의 적절한 조형해법을 찾아 예술과 실용적 관계의 경계를 넘는 미래의 상상력에 의한 새로운 작품을 추구하고 있다. 작가는 수묵의 발묵과 선염으로 간결하게 구사된 감정의 표출이 환생한 이미지가 맥색이 침윤되어 나타나는 한자나 장지의 성질과 또 다른 관계인식으로 나타나고 있다. 먹이 침윤될 때 연꽃의 아름다움과 향기가 삶의 의욕과 기쁨으로 피어나며, 옛스러운 전통의 맛을 현대인들의 시선에 맞는 코드를 통한 대중과의 소통을 구사하며 다양성을 모색하고 있다.

이은우 현 중앙대 강사

포토에세이



학교 등굣길, 눈에 띄는 계단이 하나 있습니다. 오늘과 내일은 극단적으로 나는 계단이네요. 우리의 인생도 이렇게 명확히 구분되어 있을까요?

전민호(경명 1)

이번 학기부터 새로이 '포토에세이'라는 사진 코너를 신설하게 되었습니다. 학우분들의 작품 사진이나 평소 생활 모습 등이 담긴 컬러사진을 보내주세요. 또한 2~3줄 가량의 사진 설명과 함께 이름, 학번, 학년, 연락처와 함께 이메일로 보내주세요. 지면에 사진이 실린 분께는 소정의 원고료를 드립니다. 문의 : sunny@hansung.ac.kr, 010-9135-6866